

정책연구

2026-11

전북 농촌 유휴 · 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

Revitalization Model for Idle and Underused Rural Facilities in Jeonbuk

조원지 황영모 권오현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조원지

University of Georgia 철학박사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황영모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원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현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1

전북 농촌 유휴·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

Revitalization Model for Idle and Underused Rural Facilities in Jeonbuk

조원지 황영모 권오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조원지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연구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제5장 1절, 2절
	권오현	연구원	제3장

자문위원	장택주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실장
	이원석	참좋은마을연구소 대표
	최재문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

연구협력관	남현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장
	김성남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사회활력과 농촌사회활력팀장

연구관리 코드 : 26JU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이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전북 농촌지역의 유희·저이용 시설과 기존 자산을 생활권 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지역자산 재생모델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북 농촌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시설과 자산을 축적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운영주체 약화 등으로 일부 시설은 활용도가 낮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유희시설을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기능 전환과 복합 활용이 가능한 지역자산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는 권역센터, 마을회관, 체험시설, 가공시설, 숙박시설 등을 실행공간으로 전환하고, 농촌체험·관광·가공 자원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정책 및 문헌 분석, 행정자료 검토, 시설 활용실태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수행됨
- 분석결과, 시설과 자원을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유형화하고 생활권 기반 활용모델을 도출함
- 주요 실행모델로는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마을에 남기는 14일 : J-Rural Learning Lab, 마을 배움채류 캠퍼스 조성사업,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을 제시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전북 농촌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을 활용부족과 운영 한계를 겪고 있음
- 향후 정책은 신규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과 생활권 단위 연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희시설 활용은 공간 정비뿐 아니라 먹거리, 체험, 교육, 돌봄 등 복합 기능 결합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자산 재생을 추진해야 함

■ 정책제언

- 첫째, 유희·저이용 시설은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와 활용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개별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읍·면 생활권 단위로 시설과 자원을 연계하고 기능을 재편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 셋째, 행정,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청년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운영체계를 통해 운영주체를 다변화하고 전문성을 강조해야 함
- 넷째 관련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관리는 시설 이용 중심에서 지역소득, 관계인구, 주민참여 등 지역자산 재생 효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정책은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역자산 재생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범위	5
나. 주요 연구 내용	6
다. 연구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동향

1.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선행연구	11
가. 유희·저이용 시설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11
나.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유희·저이용 시설 발생	12
다. 유희·저이용 시설의 기능 전환과 복합활용	13
2.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정책 동향	16
가. 정책 방향의 변화	16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6
다.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17
라.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18

제3장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성과와 과제

1.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운영 현황	23
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23
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간정비사업의 추진성과	27
다. 청년 정착 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28
2. 전북 농촌활성화 자원의 활용 현황	30
가.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활용 현황	30
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관광 자원	34
다. 지역축제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37
3.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정책적 과제	42

제4장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외 사례	47
가. Smart Rural 21	47
나. Smart Rural 27	53
다.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	61
2. 국내 사례	63
가.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63
나. 평택 웃다리문화촌	65
3. 시사점	67

제5장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1. 기본구상	73
2. 유형별 세부모델	78
가. 소득·창업형	78
나. 체험·교육형	82
다. 생활서비스·정주형	87
3.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안)	94
가.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94
나. 마을에 남기는 14일: J-Rural Learning Lab	102
다.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110
라.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117
4. 결론 및 제언	128
가. 결론	128
나.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2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3-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24
[표 3-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관리 현황(2026)	24
[표 3-3] 시설 기능별 현황(2026)	25
[표 3-4]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진단	26
[표 3-5]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27
[표 3-6]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연도별 추진 현황(2026)	27
[표 3-7]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28
[표 3-8]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연도별 추진 현황(2026)	28
[표 3-9]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추진 현황(2026)	29
[표 3-10] 시군별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30
[표 3-11] 이용 범위에 따른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31
[표 3-12] 설립 연한에 따른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31
[표 3-13] 전체 공동이용시설물 이용 등급(2023)	31
[표 3-14] 이용 범위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32
[표 3-15] 이용 용도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33
[표 3-16] 설립 연한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33
[표 3-17]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2026)	34
[표 3-18]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6)	34
[표 3-19]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2026)	35
[표 3-20] 지정시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6)	35
[표 3-21] 관광농원 운영 현황(2020.12.)	36
[표 3-22] 시군별 관광농원 현황(2020.12.)	36
[표 3-23] 시군별 농촌민박 운영 현황(2020.12.)	37
[표 3-24] 시군별 전북 지역축제 현황(202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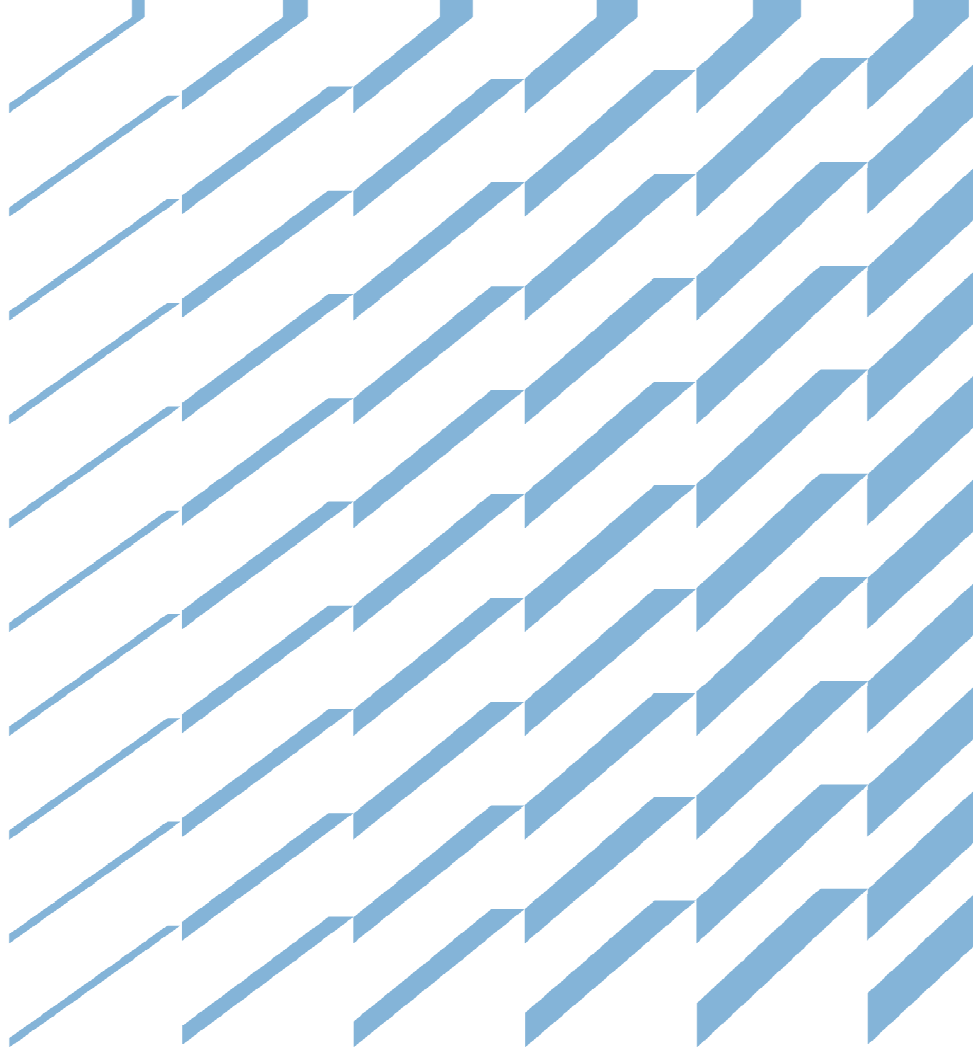
[표 3-25]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현황(2023)	37
[표 3-26] 개최시기별 지역축제 현황(2023)	38
[표 3-27] 최초 개최시기별 지역축제 현황(2023)	38
[표 3-28]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현황(2026)	38
[표 3-29] 농촌융복합산업 유형별 현황(2026)	39
[표 3-3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6차산업 주요내용별 현황(2026)	40
[표 5-1] 소득·창업형 모델의 연계사업	81
[표 5-2] 체험·교육형 모델의 연계사업	87
[표 5-3]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의 연계사업	92
[표 5-4] 세부모델별 개요	93
[표 5-5]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개요	94
[표 5-6]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96
[표 5-7] 주요 사업내용(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97
[표 5-8]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98
[표 5-9] 마을 체크인 키친 사업계획서(예시)	99
[표 5-10] 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 개요	102
[표 5-11]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	103
[표 5-12] 마을교수 운영 프로그램(안)	104
[표 5-13] 마을 현안 해결 프로젝트(안)	104
[표 5-14] 농촌 체류형 생활학습(안)	105
[표 5-15] 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106
[표 5-16] ‘마을에 남기는 14일: J-Rural Learning Lab’ 사업계획서(예시)	106
[표 5-17]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개요	110
[표 5-18]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111

[표 5-19] 주요 사업내용(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112
[표 5-20]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113
[표 5-21]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서(예시)	114
[표 5-22]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개요	117
[표 5-23]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118
[표 5-24] 주요 사업내용(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119
[표 5-25]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120
[표 5-26]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사업계획서(예시)	121
[표 5-27] 운영협의체 구성(안)	125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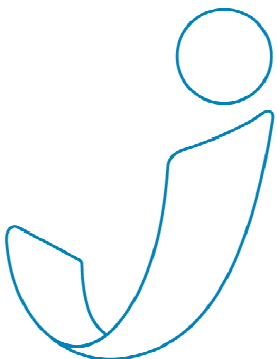
[그림 4-1] 라트비아 알순가	50
[그림 4-2] 헝가리 우포리	52
[그림 4-3] 핀란드 라우단마아	55
[그림 4-4] 이탈리아 오스타나	57
[그림 4-5] 프랑스 로름	58
[그림 4-6] 독일 오벤하우젠	60
[그림 4-7]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	62
[그림 4-8]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64
[그림 4-9] 평택 웃다리문화촌	6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전북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 저하와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그동안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체험관, 가공시설,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다양한 물리적 기반과 지역자산을 조성함
- 일부 시설은 운영주체 약화, 이용수요 감소, 프로그램 부족, 시설 노후화, 운영비 부족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시설 조성 단계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준공 이후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조직의 지속성, 수익구조 마련 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문제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나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단계와 운영단계의 단절, 사후관리체계 미흡, 운영주체 약화, 주민수요 변화, 지역자원 연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최근 농촌정책은 신규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 운영 활성화, 생활서비스 전달, 체류·관계인구 유입,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구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농촌시설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재개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자산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농촌지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시설 등 다양한 농촌활성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 간 연계와 생활권 단위 활용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 이에 전북 농촌지역의 유희·저이용 시설과 농촌활성화 자원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 체류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시설과 지역자산을 생활권 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지역자산 재생모델로 활용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활용도가 낮은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부속공간, 공동식당, 체험관,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등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실행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농산물 가공시설 등 농촌활성화 자원을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소득 창출, 청년·귀촌인 활동기회 확대, 생활인구·관계인구 형성, 생활서비스 보완 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전북형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신규 시설 조성 중심의 농촌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과 자원의 기능 전환, 복합 활용, 운영주체 육성, 사업 연계 등을 포함하는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고, 전북지역의 현황 분석은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주요 대상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설임
- 유희·저이용 시설에는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가공시설, 로컬푸드 관련 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공동창고, 마을회관 부속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이 포함됨
- 농촌활성화 자원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로컬푸드, 생태·문화자원, 생활서비스 자원 등이 포함됨
- 정책적 범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원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 크리에이티브,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정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함
- 연구의 관점은 개별 시설 단위의 관리가 아니라 읍·면 생활권 단위에서 시설과 자원을 묶고 각 시설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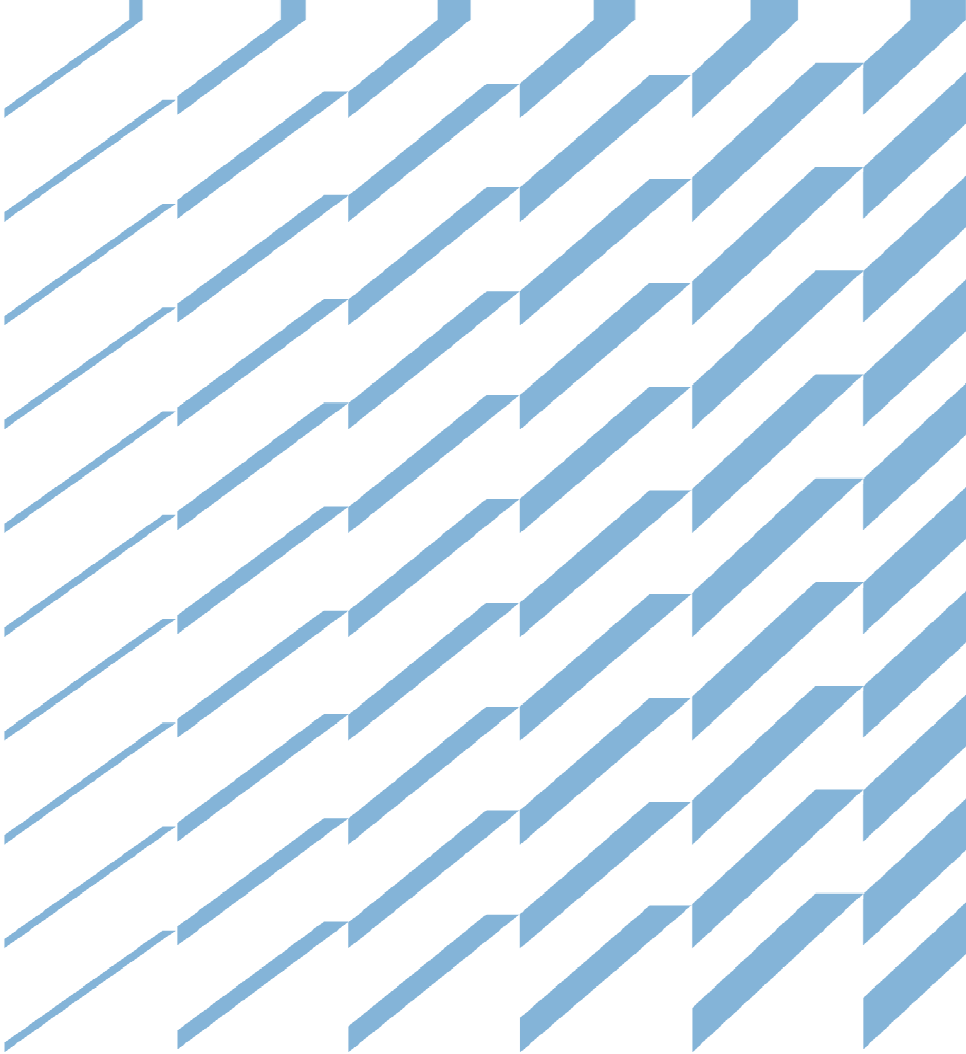
나. 주요 연구 내용

- 첫째,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함
 - 유희·저이용 시설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농촌지역개발사업 이후 시설 유희화의 원인, 기능 전환과 복합 활용의 필요성을 정리함
- 둘째,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활성화 정책의 변화 방향을 검토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마을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크리에이티브 등 관련 정책 사업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
- 셋째,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공동이용시설 활용 실태를 진단함
 - 권역센터, 커뮤니티시설, 관광·체험시설, 문화·전시·교육시설, 가공·판매시설, 복지·정주지원 시설 등의 조성 현황과 운영상 문제를 검토함
- 넷째, 국내외 농촌 유희시설 활용 및 지역활성화 사례를 분석함
 -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공동시설의 복합공간 전환, 주민 생활서비스 공간화, 협력형 운영주체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
- 다섯째, 전북 농촌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유형화하고,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을 제시함
- 여섯째, 사업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사업 및 전북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함

다. 연구방법

- 문헌·정책자료 검토를 통해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이론적 논의와 정책 흐름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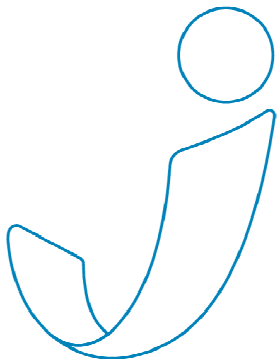
-
- 행정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조성 시설의 유형, 활용실태, 운영상 문제를 파악함
 - 농촌활성화 자원과 공동이용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과 지역자원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유희시설의 기능 전환, 복합 활용, 운영주체 구축, 디지털 운영관리, 생활권 단위 연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 농촌지역의 시설과 자원을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을 구상함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동향

1.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선행연구
2.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정책 동향



제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정책 동향

1.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선행연구

가. 유희·저이용 시설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 유희·저이용 시설은 단순히 사용되지 않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공공서비스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기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공간을 포함함
- 이종민 외 (2016)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공간이 방치되면서 빈집, 빈점포, 유희공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관 훼손, 거주환경 저하,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강조함
- 이승욱 외 (2018)은 지방중소도시와 지역사회에서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등으로 유희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현황 파악, 법적 개념 정립, 기능 변경 및 복합화,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시설 이용 수요가 약화되는 동시에 시설을 운영할 주민조직과 전문인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촌지역의 유희·저이용 시설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고 강조함
- 여혜진, 정인아 (2021)는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과 공간관리 수요를 분석하면서 농촌 공간관리는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 도지윤, 김수연 (2023)은 농촌 유희시설과 폐교가 지역재생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업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거주, 교육, 디지털 활용, 지역주민과의 연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병욱 외 (2024)는 농어촌 유희시설 활용 실태를 분석하면서 유희시설은 단순한 공

간 재생 대상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 연구에서의 유희·저이용 시설은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폐교, 공동식당, 체험관,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마을회관 부속공간, 빈집, 공동창고 등 기존 농촌지역개발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의미함
-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관리 또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따라 기능을 전환·복합화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나.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유희·저이용 시설 발생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농촌관광 및 소득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함
- 김미영 외 (2012)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농어촌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설 조성, 준공까지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시설 조성 이후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수익구조, 주민조직의 지속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김해영 외 (2019)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상당 부분이 유희화되는 배경으로 설계규모와 계획수립의 비합리성, 운영인력 부족, 지역자원과 연계되지 않는 계획수립 등을 제시함
- 김해영 외(2019)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농촌성 보전, 사업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실제 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함
- 강평년 (2019)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 현안해결 현장포럼을 활용하였으며, 완료지구의 현안을 파악하고 사후관리 유형을 구분한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강평년 (2019)은 완료지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포럼 이후 실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지 여건과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DB구축, 관계자 간 역할 정립, 대상지 현안에 맞는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발, 조례 제정, 행정전담부서 설치, 중간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
- 박경빈, 김철영 (2023)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거점시설 운영실태를 분석하면서, 우수 운영지구는 적극적인 주민참여, 차별화된 권역사업, 권역 홍보 등이 특징인 반면, 미흡한 운영지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운영조직에 대한 신뢰 부족, 소통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난다고 분석함
- 이진희 외 (2024)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 공모와 농촌협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성, 주민의견 수렴 한계, 중간지원조직 미흡, 국비 지원 완료 이후 시설물 관리체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이진희 외 (2024)는 국비 지원 완료 이후에도 준공 시설물의 재활용이나 연계사업을 권장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유휴·저이용 문제는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결과가 아니라, 계획단계와 운영단계의 단절, 사후관리체계 미흡, 운영주체 약화, 주민수요 변화, 지역자원 연계 부족의 복합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시설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실태를 진단하고, 주민수요와 지역자원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함

다. 유휴·저이용 시설의 기능 전환과 복합활용

- 유휴·저이용 시설의 활성화는 단순한 리모델링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공간의 기능 전환, 운영주체 확보, 프로그램 기획, 수익구조 마련, 행정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함께 결합되어야 함
- 이종민 외 (2016)는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한 공간 재활용이 아니라 지역의 수요, 운

영주체, 제도, 자원, 관리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활용 체계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봄

- 이승욱 외 (2018)는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황조사와 활용계획 수립, 기능 변경 또는 복합화, 지역혁신 및 생활SOC 확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신병욱 외 (2024)는 농어촌 유희시설 활용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연계성, 서비스, 경제성, 교육성을 제시함
- 유희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줌
- 해당 연구는 향후 유희시설 활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체계, 운영주체 선정과 교육 병행, 지역 맞춤형 공간 설계, 복지·문화·경제 기능이 통합된 복합 활용모델, 정부지원 종료 이후의 자립 운영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해영 외 (2019)는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정 규모 설정, 유지관리 가능성, 지역자원 연계, 운영인력 확보, 사후관리계획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 강평년 (2019)의 연구는 완료지구 사후관리 과정에서 현안해결 현장포럼이 주민참여와 관계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유희·저이용 시설의 기능 전환 과정에서도 주민참여형 진단과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함을 시사함
- 박경빈, 김철영 (2023)은 완료지구 거점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 완료지구 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도지윤, 김수연 (2023)은 폐교 등 농촌 유희공간이 청년창업과 지역재생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창업공간 제공만이 아니라 거주, 교육, 문화, 디지털 활용,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분석함

-
- 이진희 외 (2024)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사업 과정 단순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국비 지원 완료 이후 시설물 관리, 기존 시설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제시함
 - 이는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이 단일 공간정비사업이 아니라 후속사업, 운영조직, 성과 관리와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은 공간 정비가 아니라 기능 전환, 운영주체 구축, 지역 자원 연계, 사후관리체계 마련 등을 함께 포함하는 통합적 운영모델로 접근해야 함

2.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관련 정책 동향

가. 정책 방향의 변화

-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농촌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중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존 시설의 운영 활성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체류·관계인구 유입, 지역자원 기반 활력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마을회관, 권역센터, 공동식당, 체험관, 가공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운영주체 약화, 이용 수요 감소,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은 유희·저이용 상태에 놓이게 됨
- 이에 따라 최근 정책은 신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보다 이미 조성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정책 흐름은 이 연구의 목적인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기존 시설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재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전환, 운영주체 구축, 주변 자원 연계, 정부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 이 법률은 농촌공간을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시·군 단위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 농촌특화지구, 농촌재생사업 등을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재생하는 목적이 있음
-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하는 협약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을 연계·추진하는 수단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을 통해 읍·면 중심지와 배후 마을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옴
-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조성된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완료지구 사후관리, 주민역량 강화, 지역자원 기반 활력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26년 이후에는 기존 생활SOC 조성 중심의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개선하여 생활거점과 활력거점을 연계하는 농촌재생 방식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단순한 시설 조성사업으로 보지 않고, 기존 조성시설의 기능 전환과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 기반으로 이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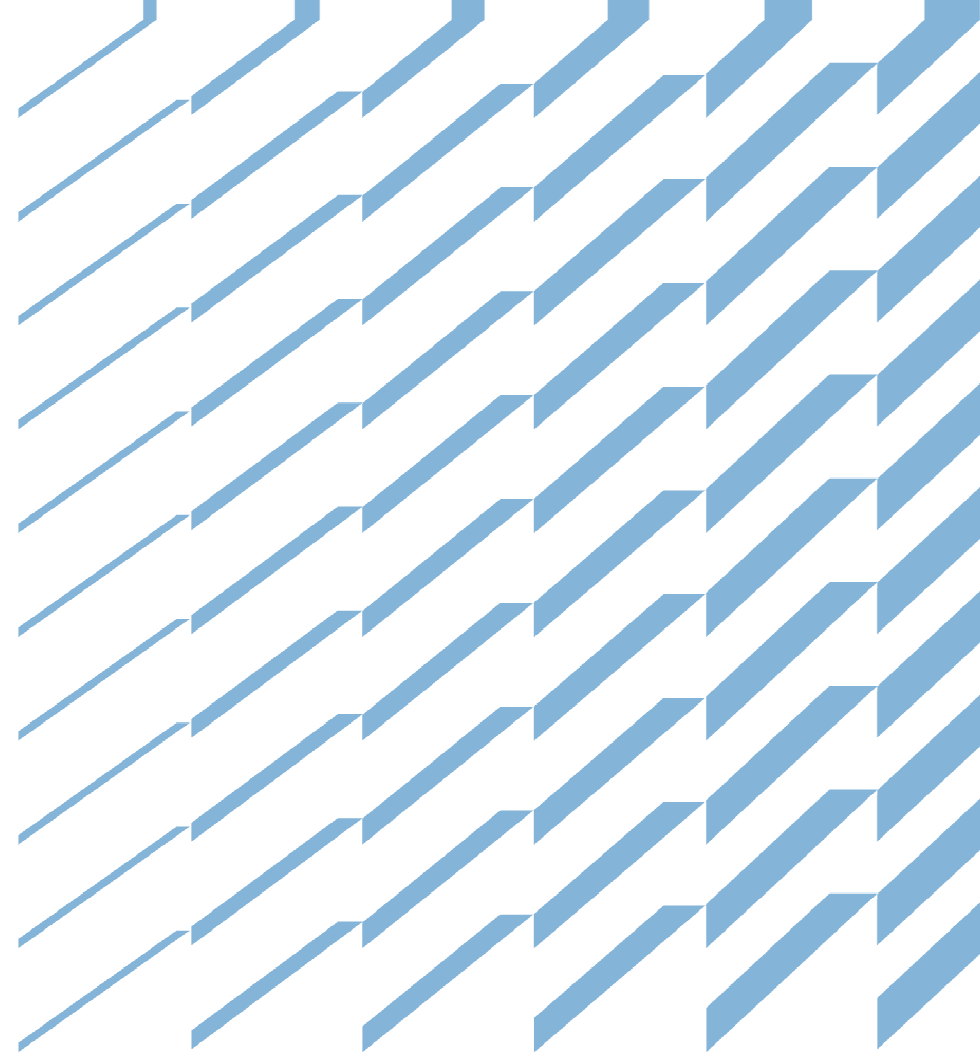
다.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빈집, 폐시설, 저이용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 사회서비스 공간, 주민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유희시설을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기능을 부여하여 농촌 활성화 거점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핵심 정책 기반이 됨
- 유희시설은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빈집, 공동창고, 폐교, 체험관, 권역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희시설 활용 정책은 공간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고 운영주체 선정, 프로그램 기획, 주민참여, 수익구조, 사후관리체계, 성과관리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함

라. 관련 정책 및 사업 동향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정책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근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농산물뿐 아니라 유희시설,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전통 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수익사업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동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촌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생활양식 등을 활용하여 체험·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에 활용 가능함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여 주거, 편의, 체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 체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농촌 주민이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문제를 공동체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
- 이러한 정책들은 각각의 목적과 기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존 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과 밀접하게 연계됨
- 농촌지역개발과 농촌활성화 정책은 신규 시설 조성 중심에서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 운영 활성화, 생활서비스 전달, 체류·관계인구 유입, 지역자원 기반 수익모델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음

-
- 이 연구는 유희·저이용 시설을 단순한 방치시설이나 관리대상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여 농촌 활성화의 실행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정책적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유희 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크리에이티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이 주요 연계 기반이 됨
 - 따라서 향후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은 개별 사업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공간 정비, 기능 전환, 운영주체 육성, 프로그램 개발, 수익모델 구축, 사후관리, 성과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3장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성과와 과제

1.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운영 현황
2. 전북 농촌활성화 자원의 활용 현황
3.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정책적 과제



제3장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성과와 과제

1.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운영 현황

-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활동, 도농교류, 체험·관광, 소득활동,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음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청년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등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환경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청년 정착 기반 조성에 기여함
- 이러한 사업을 통해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방문자센터, 체험장, 문화복지시설, 가공시설, 숙박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 조성되었으며, 이는 농촌지역의 주민 활동과 외부 방문객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되어 있음
-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주민조직 약화, 운영인력 부족, 이용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시설은 당초 조성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거나, 부분 운영 또는 미운영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전북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시설 조성 여부로만 평가하기보다, 조성된 시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변화된 수요에 맞게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운영현황

- 전북지역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총 83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장수군과 순창군이 각각 9개소로 가장 많고, 익산시·김제시·임실군이 각각 8개소, 남원시 7개소 등으로 나타남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체험장, 방문자센터, 문화복지시설, 가공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촌마을의 공동활동과 서비스 제공, 도농교류, 체험·관광, 주민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함
- 관리 현황을 보면 전체 83개소 중 70개소는 운영 중이며, 12개소는 미운영 상태로 나타남
- 운영 중인 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영 시설 중에서도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활용되거나 실질적 활성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8	5	7	8	5	4	6	9	8	9	6	5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표 3-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관리 현황(2026)

구분	활성화	개소 수	주요 내용
운영	활성화	51개소	현재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
	부분 활성화	14개소	운영은 되고 있으나 일부 공간 미사용, 시설노후화, 한시적 활용 등 보완 필요
	비활성화	5개소	운영 상태이나 실질적 활성화는 미흡한 시설
미운영	비활성화	12개소	운영 중단 또는 운영주체 부재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설
시설물없음	해당없음	1개소	운영 여부 판단 제외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시설 기능별로는 거점·커뮤니티시설 조성형이 33개소로 가장 많고, 관광·체험시설 조성형 18개소, 문화·전시·교육시설 조성형 12개소, 체육·휴양·경관시설 조성형 8개소, 가공·판매·소득기반 조성형 7개소, 복지·정주지원시설 조성형 5개소 순으로 나타남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공동활동과 도농교류, 체험관광, 문화활동,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공급해 옴

[표 3-3] 시설 기능별 현황(2026)

유형	개소 수	주요사업내용
거점·커뮤니티시설 조성형	33개소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센터, 마을회관, 다목적센터 등
관광·체험시설 조성형	18개소	체험장, 체험관, 방문자센터, 도농교류센터, 생태체험시설 등
문화·전시·교육시설 조성형	12개소	문화관, 역사관, 전시관, 전통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체육·휴양·경관시설 조성형	8개소	체육과, 야구장, 축구장, 소공원, 숲, 주차장 등
가공·판매·소득기반 조성형	7개소	가공공장, 가공센터, 농산물판매센터, 가공설비 등
복지·정주지원시설 조성형	5개소	복지센터, 공동생활홈, 실버타운, 유학센터 등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의 운영상 문제는 시설 노후화, 운영인력 부족, 관리자 부재, 운영위원회 운영 포기, 주민참여 저조, 주민갈등, 위탁운영 포기 등으로 나타남
- 일부 시설은 건물 내 미사용 공간이 있거나, 특정 공간만 활용되는 부분 운영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운영비 부족이나 관리자 부재로 인해 기능 전환 또는 처분이 검토되는 사례도 확인됨
- 이는 시설의 조성 자체보다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프로그램, 이용 수요, 운영재원, 사후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줌

[표 3-4]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진단(2026)

유형	개소 수	주요내용	주요문제
정상운영·현행유지형	46개소	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휴양마을·교육·문화·복지 등 기존 기능이 유지되는 유형	현재 큰 문제는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와 프로그램 반복 문제 발생
시설노후·보수필요형	12개소	방문자센터, 숙박동, 체험장, 권역센터 등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 편의성과 방문객 만족도가 낮아지는 유형	시설 노후화, 이용객 선호도 저하, 단체숙박 구조 등 이용 불편, 리모델링 수요 발생
운영주체·인력부족형	10개소	시설은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할 조직이나 사람이 부족하여 운영이 불안정한 유형	관리자 부재, 사무장 부재, 운영위원회 운영 포기, 위탁 반납, 영농조합 사업 포기 등
주민참여·갈등관리형	6개소	시설 활용보다 주민 간 합의와 운영 주체 정비가 우선 필요한 유형	주민참여 부족, 주민갈등, 운영주체 불명확, 공동운영 합의 부족
부분운영·공간미사용형	3개소	건물 또는 시설 일부만 활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거나 기능이 약화된 유형	건물 일부 미운영, 미사용 공간 존재, 입주율 저조, 특정 용도 외 활용 부족
한시운영·행사연계형	1개소	시설이 상시 운영되지 않고 축제, 행사, 세미나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유형	상시 이용수요 부족, 운영수익 불안정, 비수기 저이용
기능전환·처분검토형	4개소	기존 목적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시설의 새로운 용도 설정이 필요한 유형	운영비 미발생, 관리자 부재, 수익구조 부재, 기존 기능 유지 곤란
기타	1개소	시설물이 없어 운영·활성화 판단이 어려운 유형	-

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간정비사업의 추진성과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전북지역 13개 시·군, 총 89개 지구에서 추진되었으며, 시·군별 지구 수를 살펴보면, 임실이 15개 지구로 가장 많았고, 순창 11개 지구, 진안·부안 각 10개 지구, 남원 9개 지구 등 순으로 나타남
- 선정연도별로는 2023년 선정지구가 12개소로 가장 많고, 2024년 11개소, 2025년 10개소, 2020년 9개소 등 순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개선,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휴먼케어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

[표 3-5]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3	4	4	9	6	4	10	3	4	15	11	6	10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표 3-6]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연도별 추진 현황(2026)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	6	6	4	9	8	7	12	11	10	8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전북지역 9개 시·군, 총 16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수군과 고창군이 각각 3개 지구로 가장 많고, 순창군·익산시·남원시가 각각 2개 지구로 확인됨
- 선정연도별로는 2025년에 5개 지구, 2024년 4개 지구, 2022년 3개 지구, 2023년 2개 지구 등 순으로 선정됨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시설과 공간을 정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재생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3-7]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별 추진 현황(2026)

순창	익산	장수	고창	김제	남원	군산	완주	임실
2	2	3	3	1	2	1	1	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표 3-8]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연도별 추진 현황(2026)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	2	4	5	2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이들 사업은 직접적으로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의 노후공간, 방치공간,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시설의 기능 재편과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과 연계될 수 있음
- 향후에는 물리적 정비 성과뿐만 아니라 정비 이후 부지와 시설의 활용계획, 주민 생활 서비스와의 연계, 인근 공동이용시설과의 기능 조정, 사후 유지관리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청년 정착 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성과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 시·군, 5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음
- 지구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남원시 아영면 등이 포함됨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 문화·여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정주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다만 향후에는 주거단지 조성 자체의 성과뿐만 아니라 청년의 입주 수요, 장기 정착 여부,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 보육·문화·여가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 기존 마을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정착 기반은 독립된 주거사업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유희공간, 마을활동 공간, 지역자원과 연결될 때 지역 내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표 3-9]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추진 현황(2026)

구분	지구 수	사업지역
남원시	2	대산면 신계리(2024)
		아영면(2026)
장수군	1	장수읍 노하리(2025)
순창군	1	동계면 구미리(2024)
김제시	1	진봉면 심포리(2023)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2. 전북 농촌활성화 자원의 활용 현황

가.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활용 현황¹⁾

- 2023년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총 670개의 농촌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 농촌 공동이용시설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권역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 단위 공동이용 시설, 향토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등 개별 경영체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포함함
- 시군별로는 진안군이 97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군 79개소, 임실군 73개소, 장수군 65개소, 남원시 56개소 순으로 나타남²⁾

[표 3-10] 시군별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단위 : 개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8	29	37	41	56	30	27	97	50	65	73	79	42	36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이용 범위별로 보면 마을 단위 시설물이 529개소로 전체의 79.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읍·면 단위 시설물은 84개소, 권역사업 시설물은 57개소로 나타남
- 이는 전북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대부분이 읍·면 또는 권역 단위의 대규모 거점시설보다 마을 단위 생활·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줌

1)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를 재정리함

2) 마을 단위로 중복 소재한 시설을 포함하여 집계한 결과로 동일 마을 내 복수 시설이 포함될 수 있음

[표 3-11] 이용 범위에 따른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단위 : 개소)

마을 단위 시설물	읍면 단위 시설물	권역사업 시설물
529	84	57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설립 연한을 보면 설립 후 10년을 초과한 시설이 388개소로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후 10년 이하 시설은 208개소로 나타남
- 이는 향후 시설 노후화, 기능 중복, 이용수요 변화에 따른 개보수와 기능 조정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12] 설립 연한에 따른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현황(2023)

(단위 : 개소)

10년 초과	10년 이하
388	208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전체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등급을 보면 미이용 시설이 202개소로 전체의 30.1%, 저조 시설이 173개소로 25.8%를 차지하며, 미이용과 저조 등급을 합산하면 375개소로 전체의 56.0%에 해당함

[표 3-13] 전체 공동이용시설물 이용 등급(2023)

(단위 : 개소)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미이용
173	29	42	58	166	202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이용 범위별로 보면, 마을 단위 시설물은 양호 이상 시설이 145개소(27.4%)인 반면, 미흡 이하 시설 187개소(35.3%), 미이용 시설 165개소(31.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임

- 마을 단위 시설물은 사용연한이 10년을 초과한 노후 시설이 많고, 기존 마을회관·로당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체험시설은 운영 역량과 수익구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이용될 가능성이 큼
- 읍·면 단위 시설물은 양호 이상 시설이 39개소(46.4%)로 마을 및 권역 단위 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읍·면 단위 시설이 통합적 서비스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14] 이용 범위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미운영
마을	142	45	32	24	121	165
권역	14	8	4	2	16	13
읍면	10	5	6	3	36	24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주 용도별로 보면, 문화·복지시설은 우수 등급이 24.1%인 반면 저조 28.8%, 미이용 26.9%로 나타났으며, 읍·면 단위 시설은 비교적 이용률이 높지만 마을 단위 시설은 기존 마을회관·경로당과의 기능 중복 및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은 편임
- 가공시설은 우수 27.3%, 미이용 42.9%로 나타났고, 체험시설도 우수 17.9%, 미이용 42.9%로 조사되어 가공·체험시설의 상당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가공·체험·숙박시설은 운영주체의 역량, 프로그램 구성, 판로 및 방문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이용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복합시설은 우수 등급이 39.2%로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설 유형으로 볼 수 있음

[표 3-15] 이용 용도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미운영
문화·복지	123	39	29	18	103	115
가공	14	2	3	4	21	33
체험	8	6	5	3	10	24
숙박	1	6	2	2	8	12
복합	20	5	3	2	31	18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설립 연한별로 보면, 설립 후 10년을 초과한 시설은 우수 등급이 23.5%, 미이용이 31.2%로 나타난 반면, 10년 이하 시설은 우수 등급이 30.3%, 미이용이 21.2%로 나타나 최근 조성 시설일수록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이는 설립 연한이 오래된 시설일수록 시설 노후화, 기능 중복, 이용수요 변화, 운영주체 약화 등의 영향으로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큼을 보여줌

[표 3-16] 설립 연한에 따른 이용률 현황(2023)

(단위 : 개소)

구분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미운영
10년 초과	100	37	19	20	91	121
10년 이하	57	18	20	6	63	44

출처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 이러한 결과는 전북 농촌지역에 다양한 공동이용 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절반 이상의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따라서 농촌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별 활용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변화된 수요에 맞게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나.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관광 자원

-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26년 기준 총 150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정상 운영 중인 마을은 125개소로 83.3%를 차지함
- 숙박만 운영하는 마을은 4개소, 준비 중인 마을은 3개소이며, 미운영 마을은 16개소, 지정취소 예정 마을은 2개소로 나타남

[표 3-17]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2026)

(단위 : 개소)

운영	숙박만 운영	준비중	미운영	지정취소 예정
125	4	3	16	2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시·군별로는 무주군이 19개소로 가장 많고, 임실군 16개소, 남원시 13개소, 정읍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이 각각 12개소로 나타남

[표 3-18]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6)

(단위 : 개소)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11	2	11	13	19	10	12	12	10	16	9	1	12	12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운영률을 보면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은 지정된 마을이 모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안은 전체 10개소 중 운영 중인 마을이 6개소로 운영률이 60.0%에 그치며 장수와 순창도 각각 66.7%로 낮은 편임

[표 3-19]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2026)

(단위 : 개소)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운영	1	1	10	12	13	8	10	12	16	6	12	8	10	6
숙박만	0	0	0	0	0	2	0	0	0	1	0	1	0	0
준비중	0	0	0	0	0	0	0	0	0	1	0	0	0	2
미운영	0	1	0	0	0	1	2	0	3	1	3	3	1	1
자랑마을 예정	0	0	0	0	0	0	0	0	0	0	1	0	0	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지정연도별로는 2011년에 지정된 마을이 26개소로 가장 많고, 2018년 17개소, 2012년 14개소, 2017년과 2019년 각각 12개소 순으로 나타나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상당수가 201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됨

[표 3-20] 지정시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6)

(단위 : 개소)

2009~2014년	2015~2019년	2020~2025년
61	61	28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내 전역에 비교적 폭넓게 분포하고 있고 운영 중인 마을 비중도 높은 편이지만, 미운영 또는 부분 운영마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운영 지속성 관리가 필요함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기존 공동이용시설, 농촌민박, 지역축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등과 연계될 경우 방문객 체류, 농산물 소비, 주민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단순 체험이나 숙박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계절성, 프로그램 반복, 주민 피로감, 수익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화된 방문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게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12월 말 기준 전북 관광농원은 총 36개소이며, 이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26개소로 전체의 72.2%를 차지하였으며, 휴업 8개소, 폐업 2개소로 나타나 전체 관광농원의 27.8%는 정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임
- 시군별로는 완주군이 6개소로 가장 많고 군산시와 진안군이 각각 5개소,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개소로 나타남
- 운영 중인 관광농원의 수입 구조는 음식물 판매가 전체 수입의 40.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특산물 판매 19.4%, 숙박 18.5%, 농산물 판매 5.5%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21] 관광농원 운영 현황(2020.12.)

(단위 : 개소)

운영	휴업	폐업
26	8	2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1)

[표 3-22] 시군별 관광농원 현황(2020.12.)

(단위 : 개소)

구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운영	4	4	3	0	4	2	2	2	0	2	1	2
휴업	1	0	1	1	0	3	0	1	1	0	0	0
폐업	0	0	0	0	2	0	0	0	0	0	0	0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1)

- 전북 농촌민박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1,178개소로 파악되었으며, 부안군 232개소, 남원시 222개소, 무주군 122개소, 완주군 120개소 등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 농촌민박은 농업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772개소로 65.5%를 차지하여 농어업인의 농외 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운영자의 평균 연령이 58.5세이고 60대 이상 운영자 비중이 높아 향후 운영 역량, 서비스 품질, 디지털 예약·보 대응이 과제로 제기됨

[표 3-23] 시군별 농촌민박 운영 현황(2020.12.)

(단위 : 개소)

부안	남원	무주	완주	고창	진안	군산	정읍	장수	순창	익산	임실	전주	김제
232	222	122	120	92	87	81	53	51	46	26	24	13	9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1)

다. 지역축제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전북 지역축제는 2023년 기준 총 88개로 집계되었으며, 남원시 13개, 부안군 10개, 군산시·완주군·임실군 각 7개, 무주군·고창군 각 6개 등으로 나타남

[표 3-24] 시군별 전북 지역축제 현황(2023)

(단위 : 개)

남원	부안	군산	완주	임실	무주	고창	전주	정읍	김제	진안	장수	익산	순창	기타
13	10	7	7	7	6	6	5	5	5	5	5	3	3	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3)

- 축제유형별로는 생태자연형 축제가 24개로 가장 많고, 특산물 축제 22개, 문화예술 축제 21개 등으로 나타나, 전북 지역축제는 자연경관, 농특산물, 문화예술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됨

[표 3-25]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현황(2023)

(단위 : 개소)

생태자연	특산물	문화예술	전통역사	주민화합 등
24	22	21	6	15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3)

- 개최 시기를 보면 가을 축제가 33개로 가장 많고, 10월에 시작하는 축제가 23개로 집중되어 있어 축제의 계절성이 뚜렷함

[표 3-26] 개최시기별 지역축제 현황(2023)

(단위 : 개소)

봄	여름	가을	겨울	기타
23	16	33	12	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3)

- 최초 개최시기별로는 2010년대에 시작된 축제가 33개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이후 새롭게 시작된 축제도 17개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지역축제가 적지 않음

[표 3-27] 최초 개최시기별 지역축제 현황(2023)

(단위 : 개소)

1969년 이전	170~1989년	1990~1999년	2000~2009년	2010~2019년	2020~2023년
4	4	11	19	33	17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3)

- 지역축제는 방문객 유입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내 농산물 판매, 농촌민박 이용, 체험프로그램 참여, 공동시설 활용 등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축제는 단순 행사 운영을 넘어 주변 공동이용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로컬푸드 판매공간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와 체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2026년 기준 총 28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임실군 5개소, 완주군 4개 등으로 나타남

[표 3-28]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현황(2026)

(단위: 개소)

임실	완주	정읍	남원	장수	순창	고창	익산	김제	무주	부안
5	4	3	3	3	1	3	2	2	1	1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농촌융복합산업 유형은 생산·가공·체험·판매·관광이 결합된 복합형이 19개소로 가장 많아, 전북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가공과 체험·판매를 결합한 활동이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

[표 3-29] 농촌융복합산업 유형별 현황(2026)

유형	개소	주요내용
1x2형	8	농산물 생산과 가공 중심의 유형
1x3형	1	생산과 체험·서비스가 결합된 유형
1x2x3형	19	생산, 가공, 체험·판매·관광이 결합된 복합형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중 곡물·두류 기반 가공·체험형이 15개소로 전체의 5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쌀·콩·보리·밀 등 지역 농산물을 두부, 떡, 한과, 빵, 누룽지, 조청 등으로 가공하고 일부는 체험·교육·판매 기능까지 연계하고 있음
- 다음으로 특용·약용·원예작물 활용형이 5개소로 나타났으며, 구절초, 박하, 국화, 천년초, 작두콩, 아로니아 등 지역 특화작물을 활용한 차류, 추출액, 분말, 건강가공품 생산과 원예·식생활 체험을 결합하는 특징을 보임
- 곡물·두류 기반 가공·체험형 비중이 높아 품목 다양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온라인 판매, 로컬푸드, 지역축제, 농촌관광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표 3-3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6차산업 주요내용별 현황(2026)

구분	개소	주요 원료·콘텐츠	주요 사업내용	6차산업화 유형 분포
곡물·두류 기반 가공·체험	15개소	쌀, 콩, 대두, 보리, 밀, 고구마, 옥수수, 들깨, 참깨, 모시잎 등	두부, 조청, 한과, 빵, 떡, 누룽지, 강정, 장류 등 곡물·두류 가공품 생산과 체험·판매 연계	1x2형 5개소 1x3형 1개소 1x2x3형 9개소
특용·약용·원예작물 활용형	5개소	구절초, 박하, 국화, 메리골드, 천년초, 작두콩, 아로니아, 복분자 등	차류, 추출액, 분발, 건 강가공품, 원예·식생활 체험 등 특화작물 기반 상품화	1x2형 2개소 1x2x3형 1개소
과채·채소 기반 식품가공형	3개소	사과, 토마토, 복숭아, 배추, 양배추, 오미자 등	과채류를 활용한 주스, 잼, 소스, 절임배추, 건 강식품 등 가공·판매	1x2형 2개소 1x2x3형 1개소
발효·장류· 전통식품형	2개소	대두, 고추, 콩, 꾸지뽕, 복분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식 초 등 전통 발효식품 가공과 체험·판매 연계	1x2x3형 2개소
산림·산나물·임산물 활용형	1개소	두릅, 취나물, 머위, 꿀 등	산나물 짬아찌, 꿀 제 품 등 산림·임산물 기 반 가공·판매	1x2형 1개소
축산·유가공형	1개소	산양유	요구르트, 치즈, 쿠키, 펫밀크 등 유가공품 생 산과 판매·체험 연계	1x2x3형 1개소
복합 식재료· 음식체험형	1개소	콩, 고추, 미늘, 쌀, 대파, 양파, 부추, 감자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 음식체험, 농촌 체험, 식당 운영 등 복 합 서비스 제공	1x2x3형 1개소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자료(2026)

- 전북 농촌지역은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체험·가공·숙박시설 등 물리적 기반을 확보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등 다양한 자원을 형성하여 방문객 유입과 농외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함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농촌보급자리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정착 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과 자원을 연계·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
- 시설 운영 지속성 부족, 노후화 및 기능 중복, 자원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일부 시설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절성과 행사성에 따른 이용 편차도 크게 나타남
 -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주민 중심 운영의 한계가 확대되고 있고, 전문 운영역량 부족과 함께 시설 활용실태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기반과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함

3. 전북 농촌지역개발의 정책적 과제

■ 시설별 활용실태 진단과 관리체계 구축

- 전북 농촌지역에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나 활용도와 운영 여건은 상이함
- 시설별 이용률, 노후도, 운영주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밀 진단하고, 유지·개선·기능전환 등 관리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저이용 시설은 기능 재검토와 함께 시·군 단위 DB 구축 및 정기 점검체계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과 활용 범위 확대

- 기존 시설은 변화된 지역수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거나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체험장, 가공시설, 센터 등은 주민생활, 방문객 수요, 문화·교육·창업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확대 가능함
- 신규시설 조성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투자 효과를 지속시키는 전략임

■ 운영주체의 전문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운영주체 확보가 필요함
- 주민조직, 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혼합형 운영체계가 요구됨
-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함께 운영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모델 구축이 필요함

■ 읍·면 단위 연계 운영체계 구축

- 개별 시설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읍·면 단위 통합 관리와 역할 조정이 필요함
- 시설 간 기능 중복을 줄이고 체험, 숙박, 축제, 로컬푸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행정과 지역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지역자원 연계와 지역순환형 운영모델 구축

- 다양한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함
- 숙박, 체험, 농산물, 축제 등을 결합한 지역순환형 모델을 통해 경제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 활용도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에도 기여함

■ 상시형 프로그램과 비수기 활용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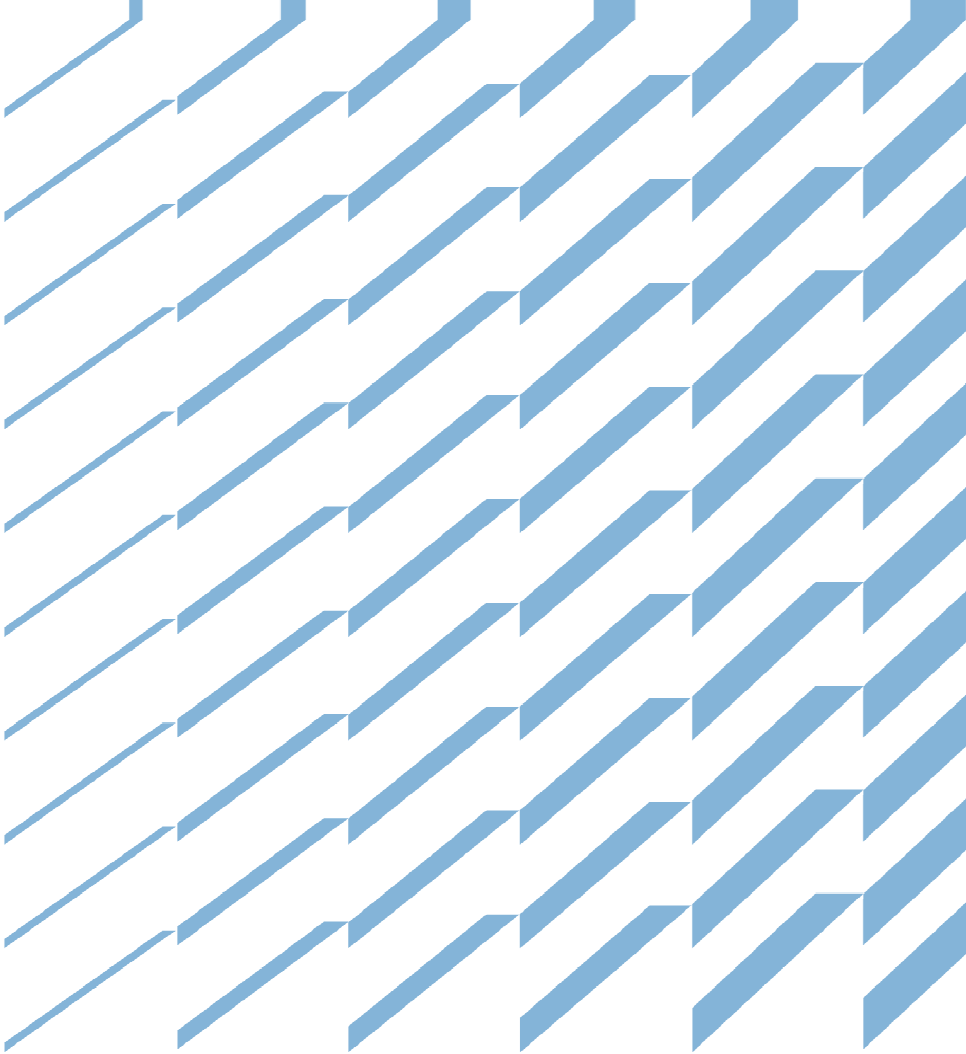
- 계절 편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중 운영 가능한 상시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주민과 방문객 수요를 고려한 운영방식 조정으로 시설 활용도와 수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디지털 기반 홍보·예약·운영관리 강화

- 농촌관광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합 홍보·예약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디지털 기반 운영관리로 예약, 데이터 추적, 성과관리까지 연계해야 함

■ 사후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사업 완료 이후 운영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용률, 수익, 주민참여 등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 진단과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전복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연계가 요구됨



제4장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외 사례

가. Smart Rural 21³⁾

- Smart Rural 21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총국(DG AGRI)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농촌지역 혁신 실험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Preparatory Action on Smart Rural Areas in the 21st Century’임
- 이 사업은 유럽 농촌마을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
- Smart Rural 21은 2019년 12월에 시작되어 약 2년 6개월 동안 추진된 사업으로, 유럽 농촌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생활서비스 약화, 청년 유출, 디지털 격차,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됨
- ‘스마트’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자원·주민역량·디지털 기술·사회혁신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전략을 만들어가는 접근을 의미함
-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유럽 전역에서 선정된 21개 농촌마을로, 이들 마을은 지역 여건과 문제를 바탕으로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기술 지원과 자문을 받으며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함
- Smart Rural 21의 추진 방식은 1) 스마트 빌리지 개념 확산, 2) 온라인 플랫폼 운영, 3) 참여마을 선정, 4) 21개 마을 대상 기술지원, 5) 전략 수립 및 실행과정 모니터링, 6) 결론 및 정책권고 도출 등으로 구성됨

3) smartrural21.eu

- Smart Rural 21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럽 21개 농촌마을이 각자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 빌리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함
- 둘째, 약 200개 Come Along! Villages가 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접 지원 대상 외의 농촌마을도 학습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확산 구조를 형성함
- 셋째, 디지털 기술, 재생에너지, 재생농업, 마을회관 재생, 원격근무, 환경관리, 교육,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스마트 액션이 현장에서 실험됨
- 넷째, 사업 결과는 후속사업인 Smart Rural 27로 연결되어 스마트 빌리지 정책을 회원국 정책체계와 CAP 전략계획 속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기반이 됨

■ 라트비아 알순가(Alsunga)

- 알순가는 라트비아 서부 쿠르제메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 알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심이고, 2020년 기준 알순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는 1,361명이며 이 중 중심마을인 알순가 마을은 약 600명 규모로 파악됨
- 알순가는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주거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수이티(Suiti) 문화를 핵심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 수이티 문화공간은 2009년 유네스코 긴급보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전통 음식, 수공예, 민속문화, 문화관광의 기반이 되고 있음
- 알순가 스마트 빌리지 전략의 핵심 목표는 지역 고유자원인 수이티 문화를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 관광, 교육, 청년 참여, 생활서비스 개선을 결합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음
- 알순가의 핵심 전략은 지역가치 기반 소규모 비즈니스 육성과 마을 인구 안정화로, 수이티 문화를 활용한 로컬푸드·공예시장을 조성하여 지역 농민, 수공예인, 가정식 생산자, 관광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함
- 관광사업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여 숙박, 식사, 체험,

상품 정보를 지역 사업자들이 공유하였으며, 앱 개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도록 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함께 추진함

- 알순가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어려운 독립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지역 도서관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한 코워킹 공간을 조성하여 와이파이, 프린터, 회의공간 등을 갖춘 공유업무공간으로 활용함
- 인구 안정화를 위해 학교 교육환경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프로그래밍 교육과 증강 현실·가상현실 학습도구를 활용하여 젊은 가족에게 매력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였고, 청년들이 마을계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스마트 빌리지 액션그룹 참여를 확대함
- 전북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역축제 등 다양한 자원이 있으나 상당수가 방문객 대상 체험과 휴양 기능에 집중되어 있음
- 알순가의 경우, 이러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소득활동과 청년 창업, 교육환경 개선으로 확장함
- 알순가 사례를 통해 전북 지역축제와 관광농원을 알순가의 수이티 시장처럼 로컬푸드, 공예, 농산물, 가정식 생산자 시장과 연계하고, 저이용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폐교 등을 청년·귀농귀촌인·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농촌민박, 관광농원, 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를 연결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숙박·식사·체험·판매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작은학교와 농촌유학, 체험휴양마을을 연계하여 청년과 가족 단위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그림 4-1] 라트비아 알순가

■ 헝가리 우포니(Uppony)

- 우포니는 헝가리 북동부 보르쇼드-아버우이-젬플렌(Borsod-Abaúj-Zemplén)주 오즈(Ózd) 소지역에 위치한 인구 약 280명의 소규모 농촌마을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수준 등 농촌 쇠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임
- 우포니 스마트 빌리지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프트 관광의 지역 선도마을이 되는 것으로, 협곡, 산림, 초지, 저수지, 블루트레일, 포도밭과 과수, 선사·민속문화 자원을 관광·겨울·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전략을 추진함
- 첫째, 우포니는 협곡, 석회암 절벽, 산림, 초지, 저수지 등 자연·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자원 보전, 습지 조성, 생물다양성 조사, 침입종 관리, 서식지 보존 등 환경관리와 연계하고 있음
- 둘째, 지역 과수 품종, 오래된 포도밭, 전통 농업기술 등 농업생물다양성을 조사·보전

하고, 이를 먹을 수 있는 길(edible path), 탐방로, 식생활교육, 체험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교육·관광·지역소득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셋째, 선사시대 유적, 민속문화, 오래된 와인 저장고, 전통 농업도구 등 문화유산을 조사·전시하고, 건축캠프와 문화교육, 체험형 전시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있음
- 넷째,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복지거점, 무료 와이파이, 원격근무 공간,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연구·실습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외부 연구자·학생·전문가의 지역 체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다섯째,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지역 식품 생산, 공동 가공, 짧은 먹거리 공급망, 목재·바이오매스의 고부가가치 활용,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생산·소비·에너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생태사회적 지역경제를 구축하고자 함
- 여섯째, 기존 게스트하우스와 낚시호수 등 제한적인 관광 기반을 자전거길, MTB 트레일, 휴식·피크닉 공간, 농촌숙박, 체험형 학습공간, 조류관찰, 사진관광, 전기교통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으로 확장함
- 우포니 사례는 전북 농촌의 기존 시설과 지역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문화자원, 디지털 기반, 체류형 관광, 지역상품, 에너지 효율화, 주민 참여형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4-2] 헝가리 우포니

나. Smart Rural 27⁴⁾

- Smart Rural 27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한 ‘제2차 21세기 스마트 농촌지역 준비행동’으로 2020년 12월에 착수함
- 이 사업은 Smart Rural 21의 후속사업 성격을 가지며, 개별 마을의 스마트 빌리지 전략 수립을 넘어 EU 회원국과 농촌공동체가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CAP) 및 관련 EU 정책 안에서 스마트 빌리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Smart Rural 27은 유럽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생활서비스 약화, 청년 유출,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농촌공동체가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책·재원·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둠
- Smart Rural 27은 스마트 빌리지를 개별 마을의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EU 및 회원국 정책체계 안에서 지원해야 할 농촌정책 수단으로 구체화하고 LEADER와 스마트 빌리지의 연계 가능성을 명시함
- Smart Rural 27은 다중재원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오매핑 도구, 지식클러스터, 관찰소, 선도사례는 농업공동체가 서로의 경험을 학습하고, 정책담당자가 현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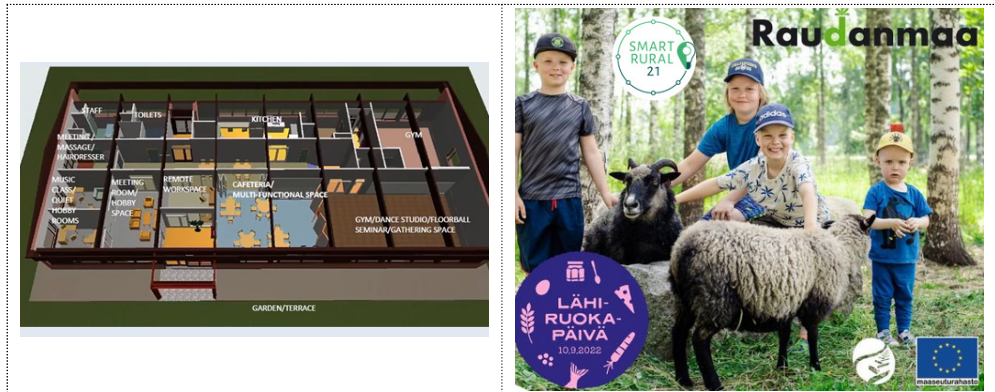
■ 핀란드 라우단마아(Raudanmaa)⁵⁾

- 라우단마아(Raudanmaa)는 핀란드 서부 캥가살라(Kangasala)시에 속한 산림·호수형 농촌 마을로, 약 600명이 거주하며, 탐페레(Tampere)시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음
- 라우단마아는 호수, 숲, 들판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활동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지역으로, 폐교를 활용한 다기능 마을회관 조성, 생활서비스 회복, 원격근무 기반 마련, 교육·치유형 농장 운영, 디지털 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함

4) smartrural27.eu

5) www.raudanmaa.com

- 주민들은 수질과 식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08~2012년 상하수도관을 구축하였으며, 2016~2019년에는 마을 공동 협동조합 방식으로 광섬유망을 구축함
- 과거 마을학교는 협회활동, 동아리, 강좌, 주민모임의 중심공간이었으나, 2019년 폐교되었고, 주민들은 2020년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2021년 폐교 건물을 매입하여 다기능 마을회관으로 전환함
- 다기능 마을회관은 단순한 주민회관이 아니라 주민모임, 취미활동, 체육, 교육, 원격근무, 서비스 제공, 관광객 방문이 가능한 복합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이후 팝업 업무공간, 가상진료, 로컬푸드매장, 택배 수령지, 카페·간식 공간 등이 운영되었으며, 마사지, 미용, 웰빙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 제공자도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
- 라우단마이는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농장인 피쿠피하(Pikkupiha)를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농장은 2021년 개장 첫째 약 2,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2022년 5월에는 약 500명의 아동이 교육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함
- 어린이농장에는 동물매개치료 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농촌체험을 교육·관광뿐만 아니라 치유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라우단마이는 마을회관의 공간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SIO 예약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간예약, 자원예약, 결제, 원격 출입통제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
- 마을명인 Iron Land를 기반으로 로고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웹사이트와 SNS를 활용하여 어린이농장, 지역음식, 행사, 자연환경을 연계한 방문객 유치 활동을 추진함
- 라우단마아 사례는 전북 농촌의 기존 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협동조합 기반 운영, 생활서비스 복합화, 교육·치유·체육 기능 결합, 디지털 예약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4-3] 핀란드 라우단마아

■ 이탈리아 오스타나(Ostana)

- 오스타나(Ostana)는 이탈리아 피에몬테주에 위치한 산악형 농촌마을로, 몬비소(Monviso) 산을 마주한 오크어권 산촌마을이며, 인구는 89명 규모임
- 오스타나는 20세기 후반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으나, 1980년대 후반까지 건축 재생, 문화활동,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연구·교육 기능을 결합한 산촌재생을 추진함
- 오스타나 재생의 핵심은 전통건축과 알프스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교육·복지·주거·연구·창업 기능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오스타나는 엄격한 건축복원 원칙에 따라 공공인프라와 민간주택을 재생하였으며, 산장형 호텔, 빵집, 시장·여가공간, 야외 클라이밍 시설 등을 조성하여 마을의 생활·관광 기반을 함께 확충함
- 2012년 조성된 Lou Pourtoun 문화센터는 공연, 전시, 연구, 교육, 회의, 도서관, 코워킹, 디자인 갤러리, 레스토랑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주민과 방문객, 연구자, 예술가가 함께 활용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함
- 이후 VISO A VISO 사회적기업이 문화센터와 민속박물관 등을 운영하면서 연중 문화프로

그럼, 대학·연구기관 교육, 영화상영, 현대미술 전시, 공예 쇼룸, 오픈도시관 등을 확대함

- Lou Pourtoun에는 알프스 하천 연구센터인 ALPSTREAM이 구성되어 유럽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교육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스타나는 마을 전체를 알프스의 실험적 학습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오스타나는 레시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 예술가, 창업가, 전문가, 가족 등이 일정 기간 마을에 머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산촌생활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단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마을의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임시·반상주 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젊은 노동인구와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사회주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기존 건물을 회복하여 반상주·임시거주·스마트워킹이 가능한 주거 기반을 마련함
- 방치된 농지와 산림은 토지소유자협회인 'Ritorno ai Prati'를 통해 임대·활용되며, 신규 농업비즈니스,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역 목재 공급망과 연계되고 있음
- 조직하여 분산·방치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과 신규 농업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목재 공급망,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역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함
- 오스타나는 공공가로등과 지방정부 건물 등에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산촌마을의 에너지 자립성과 운영비 절감도 함께 도모함
- 오스타나 사례는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시설과 방치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재생, 복합공간화, 사회적경제 기반 운영, 체류인구 유입, 교육·문화 기능 확대, 지역자원 순환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 4-4] 이탈리아 오스타나

■ 프랑스 로름(Lormes)

- 로름(Lormes)은 프랑스 부르고뉴-프랑슈콩테 지역 니에브르주 북동부에 위치한 소규모 농촌 중심지로, 인구는 약 1,270명이며 파리와 리옹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함
- 로름은 교육, 보건, 문화시설과 30개 이상의 상점이 입지한 농촌 서비스 중심지로, 주변 농촌지역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로름의 핵심 방향은 디지털 포용, 농촌 디지털 허브 조성, 광섬유망 구축, 주민참여형 지역발전전략, 중심지 재생, 지속가능한 이동성 강화에 있음
- 로름은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전환을 농촌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로 인식하고, 2003년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Digital Mission' 협회를 설립하여 주민과 지역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함
- 2008년에는 방치되어 있던 옛 도축장을 활용하여 농촌 디지털 허브를 조성하였으며, 이 공간은 교육, 코워킹, 소규모 사무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100Mbit/s급 인터넷, 영상시스템, 전자칠판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운영됨
- 2015~2016년에는 디지털 허브를 확장하여 업무·회의공간을 추가하고 3D 프린터, 3D 스캐너, 디지털 밀링머신, 로봇키트, 디지털 자수기 등을 갖춘 FabLab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디지털 제작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로름은 FTTH 광섬유망 구축을 통해 농촌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여형 서비스 설계와 디지털 포용 지원을 함께 추진함
- ‘Faire Compagnie’ 플랫폼 개발에 참여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지원, 자원봉사, 사회적 교류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함
- 2016년에는 ‘미래마을(Villages of the Futur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민, 기업, 행정이 함께 10년 후 로름의 미래상을 논의하고, ‘Lormes, the sweet town’이라는 전략문서와 2027년까지의 실행로드맵을 수립함
- 로름 사례는 전북 농촌의 기존 시설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확충, 주민 디지털 역량 강화, 유희공간의 복합거점화, 통합 플랫폼 구축, 주민참여형 실행계획 수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 4-5] 프랑스 로름

■ 독일 오벤하우젠(Overhausen)

- 오벤하우젠(Ovenhausen)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회스터(Höxter)시에 속한 인구는 약 1,050명의 농촌마을로 회스터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저밀도 농촌지역에 위치함
- 오벤하우젠은 돌봄공동체, 사회적 마을카페, 무장에 마을중심지, 디지털 역량강화, 마을 앱, 디지털 건강·돌봄서비스를 결합하여 농촌마을의 일상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있음

- 지역 카리타스 그룹은 비어 있던 사제관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마을 카페인 Klöncafé로 전환하였으며, 이 공간은 기존 주민, 신규 주민, 부모와 조부모, 아동이 함께 만나는 세대통합형 교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오벤하우젠은 교구 부지를 중심으로 New Village Centre를 조성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방식으로 정비함
- 해당 센터는 무료 와이파이, 경기장, 야외 책장, 체스·드래프트 보드, 휴식공간, 세대 간 교류공간, 바비큐 공간 등이 마련되어 주민 일상생활과 공동체 행사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Smart Country Side 사업을 통해 주민을 마을 디지털 전문가로 양성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민 공동설계 과정을 통해 마을 웹사이트와 Village Broadcast 앱을 개발하여 마을 소식 공유, 지원 요청, 중고물품 나눔, 행사안내 등을 제공하는 생활권 단위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함
- Drof.Gesundheit.Digital 사업을 통해 사회적 마을카페에 무장애 전자 건강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디지털 건강·돌봄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오벤하우젠 사례는 전북 농촌의 기존 공동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형 교류공간, 무장애 생활거점, 디지털 활동가, 생활권 소통 플랫폼, 건강·돌봄 서비스를 함께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4-6] 독일 오벤하우젠

다.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⁶⁾

-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는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에서 2016년 설립된 농업법인 중심의 지역 먹거리 순환형 농촌재생 사례로, ‘지역에서 기르고 지역에서 먹는 구조(Farm Local, Eat Local)’를 통해 가미야마의 농업과 식문화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프로젝트는 농산물 생산, 식당, 빵집, 식품 판매, 가공품 개발, 식교육, 청년농 육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한 지역 먹거리 기반 농촌재생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고령화, 농업 후계자 부족, 지역 식문화 단절, 농지 유지 문제에 대한 단순한 농산물 판매 확대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과 식문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자체 농장과 지역농가 협력을 통해 채소, 쌀, 밀 등 지역 식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을 통해 경관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가 지역 농업과 식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농과 지역 생산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가미야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지역의 먹거리를 매개로 만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기능함
- 가마팬&스토어는 식당과 연결된 빵·식품 판매 공간으로, 자체 발효종을 활용한 빵, 식당에서 사용하는 조미료, 지역 가공품, 자체 농장과 지역농가의 채소를 판매하는 생활형 로컬푸드 매장임
- Food Hub Project는 지역에서 생산된 밀, 쌀, 채소, 과일 등을 활용해 빵, 조미료,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고, 사라져가는 지역의 맛과 조리법을 상품과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고 있음

6) <https://foodhub.co.jp/eat/shop/>
<https://www.in-kamiyama.jp/foodhubproject/>
<https://www.monosus.co.jp/en/social-good>

- 2023년 개교한 Kamiyama Marugoto College of Design, Engineering and Entrepreneurship의 기숙사 식사 제공에도 참여하고, 도시형 판매공간을 통해 가미야마와 다른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를 도시 소비자와 연결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 가미야정의 정책적 지원, 가미야마 쓰나구 공사의 지역재생 중간지원 기능, Monosus의 기획·디자인·운영 역량이 결합된 공공·중간지원조직·민간기업의 협력형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의 특징은 관광객을 위한 일회성 체험상품보다, 지역주민이 매일 먹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식료품점, 농산물 생산·가공·판매 구조를 만들
- 가미야마 사례는 전북의 기존 시설과 농촌 먹거리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공·식사·판매·교육·체류 기능을 통합하고, 공공·중간지원조직·민간운영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림 4-7]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

2. 국내 사례

가.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⁷⁾

- 김녕로컬푸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소재한 농촌 유희시설이었으나, ‘농촌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지역주민의 창업공간으로 재구성됨
- 초기에는 청년창업공간, 공유주방, 워크이션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특산물인 우뚝가사리를 활용한 제조·가공·판매시설 중심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화됨
-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체험, 공동체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시설이 운영주체 부족, 수익모델 부재,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저이용·유희화되는 경우와 같이 김녕로컬푸드센터 농촌 유희시설로 분류됨
- 김녕로컬푸드센터는 단순 판매시설이나 창고형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역특산물인 우뚝가사리를 활용한 제조·가공·판매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공상품, 체험상품, 판매상품으로 전환하여 지역소득과 창업기회를 만들 예정임
- 김녕로컬푸드센터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판매시설로 재편하면서 공유주방을 중심으로 상품 가공 및 제조실, R&D실, 상품체험실 등을 배치하여 생산, 실험, 체험, 판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 예정임
- 우뚝가사리는 제주 해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식품가공, 디저트, 체험상품, 건강식, 관광기념품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김녕로컬푸드센터는 지역자원 기반의 가공·체험·판매 거점으로 전환 예정임

7) <https://www.ihalla.com/read.php3?aid=1728181237763434079>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065&utm>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280&utm>

- 센터의 공유주방은 개별 창업자가 초기부터 별도 제조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시제품 개발, 소량 생산, 상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예정임
- 기존 로컬푸드센터가 유희화되었다면, 동일한 판매기능만 복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기존 시설에 공유주방, 제조·가공, R&D, 체험, 판매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자원이 관광객에게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가공, 레시피 개발, 브랜드 상품화, 체험,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에서 식품창업을 하려면 위생시설, 제조공간, 제품개발, 포장, 판매망이 필요하지만, 개별 창업자가 이를 모두 갖추기 어려움
- 김녕 사례와 같이 이러한 초기 진입장벽을 공유주방과 R&D 공간으로 낮추고, 지역주민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유희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8]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나. 평택 웃다리문화촌⁸⁾

- 평택 웃다리문화촌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위치한 폐교 활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금각초등학교를 2006년 평택시가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자연생태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함
- 웃다리문화촌은 2020년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유희시설 활용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폐교를 활용한 농촌 유희시설 재생 우수사례로 평가받음
- 웃다리문화촌의 이름은 충청·경기 지역 농악을 의미하는 ‘웃다리 농악’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평택의 지역문화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웃다리문화촌은 기존 폐교의 공간구조를 활용하여 교실은 전시장, 상설전시관, 전시연계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운동장과 외부공간은 조형물 전시와 야외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도예·캘리그래피, 한지공예, 금속·가죽공예, 그림책, 원예, 전래놀이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웃다리문화촌은 1960~1980년대 초등학교 모습을 재현한 ‘옛교실’을 상설 전시하여 어린이에게는 과거 학교문화를 경험하는 교육공간으로, 성인에게는 옛 학교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폐교의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가 지닌 기억과 정서를 문화자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웃다리문화촌은 전시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꼬리명주나비정원, 생태 관련 전시, 곤충 체험 등 자연생태 요소를 공간 운영에 결합하고 있음
- 운영은 평택문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과 프로그램 강사들이 체험·전시·교

8) https://www.wootdali.or.kr/wt_intro/wt_intro_main.php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03261800255588C049&s_code=C049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1>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옷다리문화촌 사례는 전북의 저이용 권역센터, 폐교 등 유허시설을 단순 리모델링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간의 기억과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생할 필요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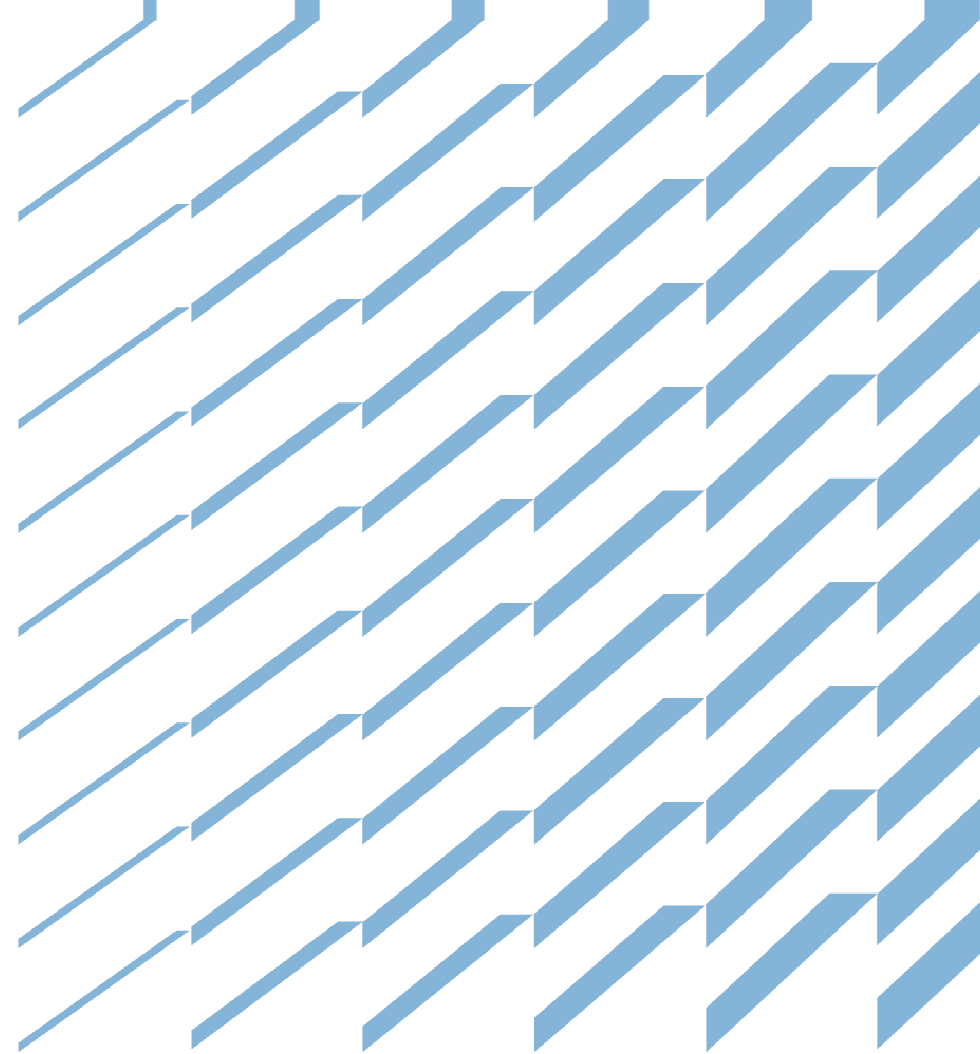
[그림 4-9] 평택 옷다리문화촌

3. 시사점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의 활용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재개장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지역수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고 여러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폴란드 토마신, 일본 가미야마,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사례는 지역 농산물과 먹거리 자원을 생산, 가공, 식사, 판매, 교육, 지역소비와 연결함으로써 기존 시설과 지역자원을 하나의 순환구조 안에서 활용하고 있음
- 전북 농촌지역의 저이용 가공시설, 공동식당, 로컬푸드 관련 공간,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단일 기능에 머무르기보다 지역 농산물 소비, 가공품 개발, 주민 일자리, 방문객 체류,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핀란드 라우단마아, 이탈리아 오스타나, 평택 웃다리문화촌 사례는 폐교,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주민모임, 문화활동, 교육, 연구, 원격근무, 방문객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전환한 사례임
- 이는 전북의 폐교,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체험관,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을 단순 회의실이나 행사장으로 유지하기보다 주민과 방문객, 청년, 귀농귀촌인, 전문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복합거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프랑스 로름과 독일 오벤하우젠 사례는 디지털 기반이 농촌시설의 지속적 운영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농촌 디지털 허브, 마을 앱, 통합 예약·홍보 시스템, 디지털 건강기기, 주민 디지털 교육 등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도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의와 방문객 접근성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전북 농촌지역에서도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공동이용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줄이기 위해 예약, 홍보, 판매, 시설 이용, 주민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운영체계가 필요함

- 헝가리 우포니와 이탈리아 오스타나 사례는 자연환경, 경관, 농업생물다양성, 전통문화, 방치된 농지와 산림을 지역재생의 자원으로 재해석하고 있음
- 이는 전북 농촌지역의 산림, 하천, 저수지, 마을숲, 전통 농업기술, 지역음식, 농업유산 등을 기존 시설 운영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식생활교육, 지역문화 프로그램,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독일 오벤하우젠 사례는 마을카페, 무장애 마을중심지, 디지털 건강 키오스크 등을 통해 기존 공동시설을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전북 농촌지역에서도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복지문화시설 등을 주민 교류, 공동식사, 안부확인, 건강관리, 디지털 지원, 생활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안정적인 운영주체의 중요성으로 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시설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에서도 주민조직에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행정, 마을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중간지원조직, 민간 운영자, 청년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시설을 독립된 단일 공간으로 보지 않고, 주변의 농산물, 숙박, 음식, 축제, 교육, 문화, 디지털 기반, 교통, 생활서비스와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전북 농촌지역에서도 개별 시설 단위의 관리에서 벗어나 읍·면 생활권 단위로 시설과 자원을 묶고, 각 시설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함
- 미이용 또는 저조 시설은 단순히 보수하거나 처분하는 방식보다, 해당 시설이 현재 지역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재진단하고,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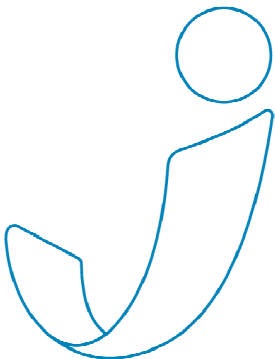
-
- 사례검토 결과, 전북 농촌지역의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은 신규시설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기능 전환, 복합 활용, 운영주체 전문화, 지역자원 연계, 디지털 운영관리, 사후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제5장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1. 기본구상
2. 유형별 세부모델
3.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안)
4. 결론 및 제언



제 5 장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1. 기본구상

■ 기본 목표

-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성화 모델의 목표는 농촌지역에 구성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낮은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폐교, 마을회관, 부속공간, 공동식당, 체험관,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활용하여 주민소득 창출, 교육·체험 확대, 생활서비스 보완, 체류·정주 기반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것임
- 전북 농촌지역은 그동안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촌활성화사업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확충해 왔으나, 일부 시설은 운영주체 약화, 이용수요 감소, 프로그램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역축제,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시설 등은 각각 농촌관광과 지역소득 창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유희·저이용 시설의 활성화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유희·저이용 시설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재개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농촌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시설을 지역소득, 교육·체험, 생활서비스, 체류·정주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 지역축제, 로컬푸드, 농산물, 마을숲, 하천, 전통문화 등과 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모델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본개념

-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활용 활성화 모델은 농촌지역에 이미 조성된 시설 중 활용도

가 낮거나 기능 전환이 필요한 공간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수요와 자원에 맞게 새로운 기능으로 재편하는 사업모델임

- 이 연구에서 유휴·저이용 시설은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당초 조성 목적에 비해 이용률이 낮거나, 특정 시기·행사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농촌 공동시설과 공공·공동기반 시설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폐교, 마을회관 부속공간, 공동식당, 공동창고, 체험관, 농산물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유휴 로컬푸드센터, 농협 폐창고, 빈집, 공동작업장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시설 자체만으로는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역축제, 농산물, 로컬푸드, 마을숲, 하천, 저수지, 전통문화, 주민기술, 청년활동 등과 연결하여 활용해야 함
-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성화 모델은 ‘시설 재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운영주체 구축’, ‘지역자원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사업모델임
- 이를 통해 유휴·저이용 시설은 단순 회의실이나 행사장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주방, 창업실험공간, 체크인 거점, 체험교육실, 워크이션 공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마을카페, 로컬마켓, 공동식사 공간 등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추진방향

- 첫째, 유휴·저이용 시설의 활용실태를 진단하고 기능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
-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시설은 조성 목적, 위치, 규모, 노후도, 운영주체, 이용률, 접근성, 주변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움
- 시설별로 현행 유지, 보수·개선, 기능 전환, 복합화, 통합 운영, 처분 또는 대체 여부를 구분하고, 실제 운영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시설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활성화 모델로 전환해야 함
- 기존에는 권역센터, 체험장, 공동식당, 가공시설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향후에는 해당 시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
- 이 연구는 유�휴·저이용 시설의 활용방향을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사업모델을 제시함
- 셋째, 유�휴·저이용 시설과 주변 농촌자원을 함께 연결해야 함
- 유툼시설만 정비해서는 지속적인 이용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 지역축제, 로컬푸드, 농산물, 마을숲, 하천,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해야 함
- 저이용 가공시설은 공동식당과 마을회관 부속공간은 방문객 안내와 마을밥상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인 키친으로, 폐교와 권역센터는 배움채류 캠퍼스나 위케이션 공간으로, 마을회관과 복지센터는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넷째, 운영주체를 먼저 구축하고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유툼·저이용 시설 활성화는 공간 정비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체가 필요함
- 주민조직,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조직, 농촌민박 운영자, 청년·귀촌인, 중간지원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조직은 시설관리뿐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예약·홍보, 회계·정산, 상품개발, 안전관리, 주민서비스 제공, 성과관리까지 담당해야 함
- 다섯째, 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유희·저이용 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모델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전북 RISE,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공간 정비는 유희시설 활용사업과 연계하고, 운영조직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하고, 교육·체험과 청년 참여는 RISE와 연계하고, 생활돌봄은 보건·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패키지화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기존 시설의 단순 재사용이 아니라 기능 전환과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의 실행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둠
- 전북 농촌지역의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폐교, 체험관,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등 활용 가능 시설을 조사하고, 각 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함
-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구분함
- 소득·창업형은 저이용 가공시설, 로컬푸드센터,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 공유주방, 시제품 제작, 로컬상품 개발, 온라인 판매, 농외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모델임
- 체험·교육형은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마을숲, 전통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교육, 생태교육, 식생활교육, 농촌유학, 교육캠프 등과 연계하는 모델임
- 생활서비스·정주형은 마을회관, 복지센터, 경로당, 권역센터, 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식사, 건강관리, 안부확인, 이동지원 등을 결합하는 모델임

■ 추진체계

- 전북자치도, 시·군, 읍·면, 마을·운영조직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북은 도 차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모델의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관련 사업 연계, 성과관리 체계 마련, 시·군 컨설팅을 담당함
- 시·군은 실제 생행 주체로서 유희·저이용 시설 조사, 대상시설 선정, 주민수요 조사, 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예산확보, 사업관리 등을 담당함
- 읍·면 단위에서는 유희시설 활용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심시설과 연계자원을 설정하고,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 정주형 기능을 지역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논의함
- 마을과 운영조직은 현장 실행 주체로서 시설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방문객 응대, 주민 서비스 제공, 수익관리, 성과자료 축적을 담당함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현장조직을 연결하는 지원주체로서 사업기획, 주민역량 강화, 운영조직 설립 지원, 회계·정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디지털 예약관리, 성과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교육청, 학교, 보건소, 복지기관,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대학, 문화예술기관 등은 기능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음

2. 유형별 세부모델

가. 소득·창업형

■ 목표

- 농촌지역의 농산물, 관광농원, 체험휴양마을, 로컬푸드, 가공시설, 지역축제,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청년창업, 농식품 가공, 로컬브랜드, 온라인 판매가 결합된 농촌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함

■ 기본개념

- 이 유형은 기존 농촌자산을 단순 체험이나 원물 판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생산-가공-체험-판매-배송-브랜드화로 연결되는 모델임
- 토마신의 Bio Hub,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 김녕로컬푸드센터 사례처럼 지역 농산물과 식품화를 중심으로 창업과 유통, 교육, 지역소비를 결합하는 방식임

■ 추진방향

- 소득·창업형 모델은 전북 농촌지역의 저이용 가공시설, 로컬푸드매장, 관광농원, 권역센터,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지역 농산물 기반의 창업·가공·판매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기존 농촌자산을 단순 체험이나 원물 판매 중심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 발효식품, 임산물, 향토음식 등을 가공상품, 체험상품, 기념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소득 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유주방, R&D실, 소량생산 공간, 포장·디자인 지원 기능을 갖춘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주민·농가가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면서 상품개발과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체험 후 구매, 농촌민박 조식 제공, 지역축제 판매, 온라인 재구매, 정기배송 등을

연계하여 방문객의 일회성 소비가 지속적인 지역 농산물 구매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판로체계를 구축함

- 운영방식은 주민, 청년, 농가,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비즈니스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상품개발, 시설운영, 홍보·판매, 수익배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주요내용

- 농촌형 공유주방 조성 추진 : 농촌형 공유주방은 청년과 지역주민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시제품을 개발하고, 소량 생산과 상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동제조공간으로 활용함
- 로컬푸드 R&D실 운영 : 로컬푸드 R&D실은 지역 농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가공품 실험,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함
- 농식품 창업실험실 조성 : 농식품 창업실험실은 청년농,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시장성 검토, 판매 실험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함
- 농촌민박 조식 연계사업 추진 : 농촌민박 숙박객에게 지역 농산물로 구성한 조식꾸러미 또는 로컬푸드 식사를 제공하여 농촌민박과 지역 농가의 소득을 연계함
- 체험 후 재구매 체험 구축 :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관광농원에서 방문객이 체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재구매할 수 있도록 예약·판매 플랫폼, 택배배송, 정기구독 서비스를 연계함
- 정기 로컬푸드 장터 운영 : 지역축제, 관광농원, 권역센터, 체험휴양마을 등을 활용하여 주말장터 또는 계절별 로컬푸드 장터를 운영하고,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의 판매 기회를 확대함
- 읍·면 생활권 단위 공동브랜드 개발 : 개별 농가나 마을 단위의 상품 홍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의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농산물·가공품·체험상품·관광상품을 함께 홍보함

- 온라인 판매망 구축 : 지역상품 온라인몰, SNS 판매, 구독형 꾸러미, 체험 후 재구매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오프라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함
- 종합하면, 소득·창업형 모델은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자산을 생산·가공·체험·판매·배송이 연결된 농촌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저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며, 청년과 주민의 창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운영방식

- 소득·창업형 모델은 농촌생활권 로컬비즈니스 협동조합 또는 농촌자산 운영법인 방식이 적합하며, 참여 주체는 농가, 청년창업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농촌민박 운영자, 마을기업, 로컬푸드 조직, 관광농원 운영자 등으로 구성함
- 운영조직은 공유주방 관리, 제품개발, 판매정산, 온라인 홍보, 체험·판매 연계, 위생관리, 회계관리를 담당하며, 초기에는 시군과 중간지원조직이 운영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판매수수료, 공간임대료, 체험료, 상품판매 수익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함

■ 연계 가능한 정부사업

- 소득·창업형 모델은 농촌 유희시설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배송이 연결되는 농촌형 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당 모델은 유희시설 리모델링, 공유주방 조성, 농식품 가공·판매, 청년창업, 로컬브랜드 개발, 체류형 농촌관광 등과 관련된 정부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휴양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권역센터, 폐교, 유희 로컬푸드센터, 저이용 공동시설 등을 공유주방, 창업공간, 가공·판매시설로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농촌협약은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자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상위계획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득·창업형 거점 조성, 로컬푸드 유통, 농촌관광, 생활서비스 기능을 함께 패키지화하는 데 적합함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과 글로컬 상권 창출팀 사업은 지역의 자연·문화·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역브랜드 개발, 로컬상권 형성과 연계할 수 있음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살이, 창업 실험, 콘텐츠 기획, 활동공간 조성과 관련되어 있어 농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청년 창업·체류 거점 조성에 활용 가능함
-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지역농산물과 향토식품을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가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컨설팅, 판로개척과 연계할 수 있음
-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역축제, 로컬푸드 자원을 연계한 창의적 농촌관광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표 5-1] 소득·창업형 모델의 연계사업

구분	주관부처	연계방향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식품부	(유희시설 활용) 유희 권역센터, 폐교, 저이용 공간시설 등을 공유주방, 창업공간, 가공·판매시설로 전환
농촌협약	농식품부	(생활권 계획) 생활권 단위 로컬비즈니스 거점 조성, 농촌관광·로컬푸드·생활서비스 기능을 패키지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중기부	(청년창업) 지역 자연·문화·먹거리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 발굴, 상품개발, 브랜드화, 사업화 지원
글로컬 상권 창출팀 (지역상권 육성 사업)	중기부	(로컬상권) 읍·면 소재지와 농촌관광 거점을 연계하여 관계인구 유형별 로컬상권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행안부	(청년유입) 청년의 지역살이, 일거리 실험, 창업활동, 콘텐츠, 기획, 활동공간 구축과 연계
K-푸드 창업사관학교	농식품부	(청년식품창업) 지역농산물, 발효식품, 향토음식, 로컬푸드 자원을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가를 발굴하고, 교육·시제품 제작·컨설팅·투자 연계·판로 지원과 연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농식품부	(농촌관광 상품화)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로컬푸드를 연계한 창의적 체류형 농촌관광 상품 개발

나. 체험·교육형

■ 목표

- 체험·교육형 모델의 목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마을숲, 하천, 전통문화, 지역축제를 활용하여 농촌교육, 생태교육, 문화예술교육, 식생활교육, 농촌유학, 늘봄학교와 연계되는 교육형 농촌관광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임

■ 기본개념

- 체험·교육형 모델은 기존의 수확체험, 만들기체험, 물놀이, 축제 방문 등 일회성·관광 중심의 농촌체험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는 모델임
- 이 모델은 농촌체험을 단순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중등 교과과정, 생태환경, 지역문화, 농업의 가치, 식생활, 기후위기 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촌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둠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마을숲, 하천, 저수지, 전통문화자원 등을 교육·체험 거점으로 활용하여 학생, 가족, 농촌유학 가구, 도시민 등이 농촌에서 배우고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임
- 체험·교육형 모델은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체험자원을 교육, 문화, 생태, 식생활, 농촌유학 기능과 결합하여 농촌체험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농촌교육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추진방향

- 체험·교육형 모델은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마을숲, 하천, 저수지, 전통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단순 체험 중심의 농촌관광을 교육형 농촌관광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기존 농촌체험은 수확체험, 만들기체험, 물놀이, 축제 참여 등 일회성·계절성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초·중등 교과과정, 농촌유학, 늘봄학교, 방

과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가족생태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등 저이용·유휴시설은 단순 체험공간이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 교육실, 전시실, 공동주방, 실습공간, 생태교육 공간 등으로 재편하여 체험·교육형 프로그램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농업, 생태, 전통문화, 예술, 지역음식 등 지역자원을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보다 하나의 통합 교육콘텐츠로 개발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농업활동, 생활문화, 먹거리, 예술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체험·교육형 모델의 대상은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하되, 교사, 농촌유학 가족, 청소년, 도시민, 귀농귀촌 예비자 등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교육·체험 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운영방식은 주민 해설자, 청년 교육기획자, 교사, 문화예술인, 생태해설사 등이 협력하는 구조가 적합하며, 주민은 농업경험과 마을생활 지식을 전달하고, 청년은 프로그램 기획, 홍보, 예약관리, 안전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교과연계 농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농업, 생태, 식생활, 지역문화, 기후환경 등을 주제로 한 현장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체험을 단순한 현장방문이 아니라 학습목표가 있는 교육활동으로 전환함
-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작은학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연결하여 농촌유학 가족이 지역에 머물며 생활·학습·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가족 체류형 교육모델을 마련함
-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 마을교육, 농업체험, 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등을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저이용 체험시설과 마을공동시설의 상시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생태교육 코스 조성 : 마을숲, 하천, 저수지, 곤충, 토종식물, 물순환 등을 활용하여 생태관찰, 생물다양성 교육, 기후환경 교육, 가족 생태학교 등으로 운영하여 농촌의 자연자원을 단순 관람 대상이 아니라 환경교육 자원으로 활용함
-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악, 한지, 장류, 전통음식, 농기구, 마을제, 두레문화 등 전북 농촌지역의 생활문화와 역사자원을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보존하면서 방문객과 청소년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자원으로 활용함
- 폐교 문화예술공간 조성 : 폐교와 권역센터를 활용하여 전시, 공예, 그림책, 원예, 생태정원, 상설전시 등을 운영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교육 복합 공간으로 전환함
- 가족 생태학교와 체류형 교육캠프 운영 : 주말과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농촌민박, 체험마을, 생태자원, 로컬푸드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1박2일 또는 2박3일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성함
- 청년 교육기획단 육성 : 청년, 귀농귀촌인,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교육자료 제작, 예약 관리, SNS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체험·교육형 모델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임
- 체험·교육형 모델은 기존 농촌체험자원을 단순 관광상품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생태·문화·예술·먹거리를 결합한 교육형 농촌관광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북 농촌지역은 학생과 가족, 농촌유학 가족, 도시민이 배우고 체류하는 교육·체험 생활권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운영방식

- 체험·교육형 모델은 농촌교육·체험 운영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협의체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작은학교, 교육청, 문화예술인, 생태해설사, 청년기획자, 마을주민, 농촌민박 운영자 등으로 구성함

- 주민은 농업기술, 마을역사, 전통음식, 생활문화 해설을, 청년은 교육기획, 홍보, 예약, 안전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늘봄학교, 농촌유학, 자유학기제와 연결함

■ 연계 가능한 정부사업

- 체험·교육형 모델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마을숲, 하천, 저수지 등 기존 농촌자산을 교육형 농촌관광 자원으로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단일 관광사업에 한정하기보다 농촌관광, 지역교육, 문화예술, 생태교육, 무장애관광, 농촌유학 관련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역체험 등을 하나의 체류형 관광코스로 묶고, 농업체험, 로컬푸드, 마을해설, 생태교육, 문화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음
-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등을 교육·문화·관광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어 농촌협약은 생활권 단위의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할 수 있으므로 체험·교육형 모델의 중심거점 조성, 생활서비스 연계, 농촌관광 기반 정비에 활용 가능함
-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교육혁신과 정주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체험휴양마을, 작은학교, 농촌민박, 폐교 등을 활용하여 농촌유학, 마을교육, 생태교육, 지역문화교육을 결합하면 지역교육과 농촌정주를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로 확장할 수 있음
-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체험·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 돌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어 마을숲, 하천, 농장, 체험관, 폐교 등을 활용하여 농업체험, 식생활교육, 전통문화체험,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농촌유학 관련 지자체·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작은학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가족 체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농촌민박과 빈집은 농촌유학가족의 체류공간으로, 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방과후·주말 체험학습 공간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농촌체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체험시설, 이동동선, 화장실, 휴게공간, 안내체계 등을 무장애 기준에 맞게 개선하면 체험·교육형 모델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폐교와 권역센터의 문화예술·전시·체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전통문화, 공예, 농악, 한지, 장류, 마을기록, 생태예술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농촌체험을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한 복합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체험·교육형 모델은 농촌관광사업만으로 추진하기보다 농촌협약, 교육발전특구, 늘봄 학교, 농촌유학, 열린관광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함께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함
- 기존 농촌체험자원을 단순 방문형 관광상품이 아니라 학생과 가족, 농촌유학 가구, 도시민이 배우고 체류하는 교육형 농촌관광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음

[표 5-2] 체험·교육형 모델의 연계사업

구분	주관부처	연계방향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 고도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관광농원, 지역축제를 연계한 창의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농촌협약	농식품부	(생활권 거점 조성)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등을 교육·문화·관광 복합거점으로 조성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지자체 시·군 교육청	(지역교육 혁신) 농촌유학, 마을교육, 생태교육, 지역문화교육과 정주기반 연계
농림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부 시·군 교육청	(방과후·돌봄) 농업체험, 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을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 연결
농촌유학 관련 지자체·교육청 사업	시·도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가족 체류형 교육) 작은학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가족 체류형 교육공간으로 활용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체험환경)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농촌체험환경 조성
문화예술교육·생활문화 관련 사업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자체	(문화예술교육) 폐교와 권역센터를 전시, 공예, 생태예술,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

다. 생활서비스·정주형

■ 목표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의 목표는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권역센터, 농촌민박, 빈집,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 돌봄, 공동식사, 건강관리, 택배수령, 원격근무, 디지털 돌봄, 청년·가족 체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는 농촌 생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

■ 기본개념

- 이 모델은 농촌 활성화의 출발점을 방문객 유치나 관광소비 확대에 두기보다 주민의 일상생활 개선과 정주여건 강화에 두는 모델임
- 이 모델은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폐교, 농촌민박, 빈집 등 기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식사, 건강관리, 돌봄, 생활편의, 원격근무, 체류·정주 지원 기능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둠
- 농촌지역의 고령화, 생활서비스 축소, 교통 불편, 돌봄 공백, 청년·가족 유입 부족 등의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이용·유희시설을 주민생활서비스 거점이자 생활인구 유입 기반으로 재편하는 방식임
- 전북 농촌지역에서도 기존 공동시설을 단순 회의공간이나 체험시설로 유지하기보다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귀촌인·농촌유학 가족 등이 머물 수 있는 생활권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농촌지역의 유희·저이용시설을 주민 삶의 질 향상, 고령자 돌봄, 생활편의 제공, 원격근무, 체류·정착 지원 기능이 결합된 농촌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추진방향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출발점을 방문객 유치보다 주민의 일상생활 개선과 정주여건 강화에 두고 추진함
- 주민 생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 :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고령자 돌봄, 교통 불편, 식사 지원, 건강관리, 생활물류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함
- 기존 공동시설을 생활서비스 복합거점으로 전환 :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폐교 등을 단순 회의공간이나 행사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식사, 건강관리, 주민교류, 생활상담, 교육, 돌봄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재편함

- 체류·정주 기능과 연계 : 농촌민박, 빈집, 청년농촌보금자리 등은 귀농귀촌 예비자, 농촌유학 가족, 청년창업가, 워케이션 이용자 등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체류·정착 기반으로 활용함
- 디지털 기술을 생활서비스 보완수단으로 활용 : 마을 앱, 공간예약 시스템, 건강관리 키오스크, 온라인 주문·수령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 돌봄, 공동시설 운영, 생활 물류, 건강관리, 주민소통 기능을 보완함
-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 : 고령자, 장애인, 아동, 방문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동선, 화장실, 휴게공간, 안내체계 등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거점의 접근성을 높임

■ 주요내용

- 사회적 마을카페 조성 : 사회적 마을카페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동차, 간단한 식사, 영화상영, 주민강좌, 신규 귀촌인 환영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공동식사와 로컬푸드 기능 결합 :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식사를 운영하고, 농촌민박 조식, 로컬푸드 판매,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연계하여 주민 생활지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함께 확대함
- 건강관리 거점 마련 :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등에 혈압·혈당 측정, 원격건강상담, 복약관리, 건강교육 기능을 결합하여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임
- 택배·생활물류 거점 운영 :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택배수령, 생필품 공동구매, 이동장터, 농산물 주문·수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불편의 완화함
- 디지털 돌봄서비스 도입 : 고령자 안부확인, 스마트폰 교육, 원격 건강상담,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임
- 원격근무와 워케이션 기능 결합 : 권역센터, 폐교, 농촌민박 등에 업무공간, 회의공간,

인터넷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청년, 귀촌 희망자, 외부 근로자 등이 농촌에서 일하며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체류·정주 지원공간 조성 : 농촌유학 가족, 청년창업가, 귀촌 예비자 등이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농촌민박, 빈집, 공동시설을 연계하고, 지역안내, 생활상담,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 생활권 이동서비스 구축 : 수요응답형 교통, 전기자전거, 공동차량, 축제·체험 연계 셔틀 등을 운영하여 고령자, 방문객, 농촌유학 가족, 워케이션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높임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저이용·유희시설을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체류·정주 기능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자 돌봄, 생활인구 유입,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음

■ 운영방식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농촌생활서비스 협동조합 또는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방식이 적합하며, 참여 주체는 주민자치회, 부녀회, 여성농업인 조직,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지소, 복지기관, 청년활동가, 귀농귀촌인, 농촌민박 운영자 등을 포함함
- 운영조직은 공동식사, 돌봄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택배수령, 이동지원, 빈집·민박 체류연계, 시설예약,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며, 고령자 서비스는 공공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원격근무·체류 서비스는 청년·귀촌인·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함

■ 연계 가능한 정부사업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폐교, 보건지소, 농촌민박, 빈집 등 기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청년·귀농귀촌인·농촌유학 가족의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해당 모델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돌봄, 생활서비스, 정주기반, 주거, 공간정비, 청년 유입, 귀농귀촌 지원 관련 정부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함

-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은 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농촌돌봄농장을 통해 반찬배달, 이동지원, 소규모 집수리, 농업활동 기반 돌봄·교육·고용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등을 통해 조성된 생활 SOC 복합센터를 공동식사, 건강관리, 문화·교육, 주민교류,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심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난개발 시설, 유해시설, 저이용 공간을 정비한 후 주민쉼터, 생활서비스 시설, 귀농귀촌 주거공간, 공동체 활동공간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생활권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 가능함
-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귀농귀촌인, 은퇴자, 농촌 유학 가족 등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체류·정착할 수 있는 주거와 생활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의 정주기반 확충과 연계성이 높음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살이,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조성,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관련되어 있어 농촌민박, 빈집, 폐교, 권역센터 등을 활용한 청년 체류·활동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지원사업 및 빈집정보 플랫폼은 귀농귀촌 예비자에게 농촌 체류, 주거정보, 정착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민박과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함

[표 5-3]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의 연계사업

구분	주관부처	연계방향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지원사업	농식품부	(농촌돌봄) 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돌봄농장과 연계하여 공동식사, 반찬배달, 이동지원, 고령자 돌봄, 농업활동 기반 돌봄·교육·고용 프로그램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생활거점 조성)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생활 SOC 복합센터를 공동식사, 건강관리, 문화·교육, 주민교류 공간으로 활용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농식품부	(청년 정착) 청년·귀농귀촌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여 농촌 정착 기반 조성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국토부	(복합 정주거점) 은퇴자·청년·귀농귀촌인의 지역정착을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문화·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정주거점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행안부	(청년 유입) 청년의 지역살이,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구축,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연계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 기반 마련
귀농귀촌 지원사업· 빈집정보 플랫폼	농식품부	농촌민박, 빈집, 체류형 주거공간을 귀농귀촌 예비자와 연계하고, 정착상담·지역탐색·생활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표 5-4] 세부모델별 개요

구분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
목적	주민소득 창출, 농외소득 확대	교육형 농촌관광, 체류형 학습 확대	돌봄·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보완
활용시설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체험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권역센터, 마을회관, 폐교,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등
주요자원	로컬푸드 등	생태·문화·농업, 농촌유학·늘봄학교 등	지역농산물, 복지자원, 보건·복지 연계
주요대상	소규모 농가, 여성농업인, 청년 등	학생, 가족, 도시민, 농촌유학 가족 등	고령주민, 1인가구, 취약계층, 신규주민 등

3.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안)

가.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 개요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은 농촌마을 내 유희·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 안내, 체험 접수, 로컬푸드 판매, 마을밥상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기존 농촌민박 및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농촌관광 활성화 모델임
- 이 사업은 유희 로컬푸드센터, 농협 폐창고, 저이용 권역센터, 공동창고,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농촌민박 이용객, 지역축제 방문객, 가족 단위 관광객, 귀촌 관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신규 숙박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기존 농촌민박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이 보유한 농산물과 음식문화, 지역축제 등 기존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임
- 상시 운영보다는 주말형, 예약제, 축제 연계형 방식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농촌마을에서도 실현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함

[표 5-5]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핵심공간	유희 로컬푸드센터, 농협 폐창고, 저이용 권역센터, 공동창고,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핵심대상	농촌민박 이용객, 지역축제 방문객, 가족 단위 관광객, 귀촌 관심자
핵심기능	체크인 안내, 마을밥상, 로컬푸드 판매, 체험 접수, 민박 연계,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운영방식	주말·예약제·축제연계형 운영
연계사업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 국내외 사례 반영요소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은 국내외 유희시설 활용 및 농촌관광 우수사례의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계한 모델임
- 일본 가미야마 Good Hub Project 사례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도입하여 마을밥상 운영, 민박 조식꾸러미 제공, 로컬푸드 판매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
- 핀란드 라우단마아 사례에서는 폐교를 다기능 마을회관으로 전환하고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유희시설을 방문객 체크인, 체험 예약, 관광 안내, 주민 교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함
-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사례에서는 유희시설을 공유주방, 제조·가공 공간, 체험 및 판매 공간으로 재편한 점을 반영하여 마을 식재료를 활용한 소규모 가공체험, 시제품 제작, 로컬푸드 판매 기능을 도입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 서천 우천바리안마을 사례에서 나타난 자연·문화자원 기반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참고하여 마을해설, 향토음식 체험, 계절형 축제 프로그램 등을 연계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은 지역 먹거리 순환, 유희시설 활용, 주민 참여형 관광,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동시에 구현하는 모델임

[표 5-6]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참고사례	반영 요소	시사업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Project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먹는 먹거리 순환 구조	마을밥상, 민박 조식 꾸러미, 로컬푸드 판매로 적용
핀란드 라우단마아	폐교를 다기능 마을회관으로 전환하고 예약시스템 도입	유휴시설을 체크인·예약·마을서비스 거점으로 활용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유휴시설을 공유주방, 제조·가공, R&D, 체험·판매 공간으로 재편	마을 식재료 기반 소규모 가공·판매·체험 공간 조성
서천 우천바리안마을	자연·문화자원과 주민조직 기반 체험마을 운영	마을해설, 음식체험·계절형 축제 프로그램과 연계

■ 주요 사업내용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은 유휴·저이용 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 안내, 체험 운영, 식사 제공, 지역상품 판매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촌관광 거점 조성사업임
- 기존 농촌민박, 지역축제, 주민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휴공간 내 체크인 데스크를 설치하여 방문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접수, 농촌민박 배정, 마을지도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년 또는 귀촌인이 운영을 지원함
- 마을밥상 키친은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하여 계절별 황토 음식과 발효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규모 식당 형태가 아닌 예약제·소규모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함
- 민박 조식 꾸러미 사업은 농촌민박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간편 조식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함
- 축제 연계 로컬마켓은 지역축제 기간에 집중 운영하며, 농산물, 가공품, 주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여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행사장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내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마을산책 프로그램은 오래된 창고, 빈집, 마을숲, 농로 등 마을의 생활문화와 경관자원을 주민 해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작은 공유주방은 꽃차, 장류, 떡, 수제청, 발효빵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귀촌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향후 지역 특산물 개발과 소규모 창업의 기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5-7] 주요 사업내용(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식
체크인 데스크	방문객 안내, 민박 배정, 체험 접수, 마을지도 제공	청년·귀촌인 운영 지원
마을밥상 키친	주민이 준비하는 계절밥상, 발효음식, 향토음식 제공	예약제 · 소규모 운영
민박 조식 꾸러미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조식 꾸러미 제공	농촌민박과 협약
축제 연계 로컬마켓	지역축제 기간 농산물, 가공품, 주민 수공예품 판매	축제 기간 집중 운영
마을산책 프로그램	오래된 창고, 빈집, 마을숲, 농로, 경관자원 해설	주민해설사 참여
작은 공유주방	꽃차, 장류, 떡, 수제청, 발효빵 등 체험·시제품 제작	주민·귀촌인 공동운영

■ 정부사업 연계방안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은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간 조성, 관광상품 개발, 운영조직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은 유휴 로컬푸드센터, 농협 폐창고, 공동창고 등을 체크인, 로컬마켓, 체험공간 등 복합 기능 거점으로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농촌민박, 마을밥상, 마을산책, 체험프로그램, 지역축제를 하나의 관광코스로 구성하여 당일형 또는 1박 2일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 연계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 중심의 운영조직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은 마을밥상 운영, 로컬마켓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박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함

- 공간 조성은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은 농촌 크리에이티브 투어 지원사업, 운영조직 구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표 5-8]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연계사업	역할	활용방향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공간 정비	유희 로컬푸드센터, 폐창고, 공동창고 등을 체크인 키친 공간으로 리모델링
농촌 크리에이티브 투어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농촌민박, 마을밥상, 체험, 지역축제를 묶은 당일형, 1박 2일형 상품 개발
마을기업 육성사업	운영조직화	주민 공동수익사업으로 마을밥상, 로컬마켓, 체험상품, 민박 연계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유희·저이용 공간을 농촌관광과 주민소득 창출의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농촌민박의 이용률을 높이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할 수 있음
- 지역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마을 내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주민은 농산물 판매, 음식 제공, 체험 운영, 마을해설을 통해 소규모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청년·귀촌인은 홍보, 예약관리, 콘텐츠 제작, 로컬상품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농촌 내 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농촌관광, 로컬푸드, 농촌민박, 지역축제를 결합한 생활권 단위 농촌관광 모델로 확장할 수 있음

[표 5-9] 마을 체크인 키친 사업계획서(예시)

[완주군 경천면 ○○마을]

1. 지역 특성

- 마을은 완주군 경천면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마을 전역에 한옥숙박, 전통문화체험, 마을산책, 문화예술 체험이 결합

2. 농촌지역의 주요 문제

- 한옥경관과 문화체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방문객 안내, 숙박 연계, 체험 접수, 식사 예약, 로컬상품 판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점 기능이 충분하지 않음
- 조성된 시설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이용률 차이가 있어 평일·비수기에는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체험프로그램은 한옥숙박, 전통음식, 공예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마을 내 농업인과 주민이 보유한 농산물, 음식문화, 취미활동, 공방기술, 동아리 활동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함
- 방문객이 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짧거나 개별 체험 후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 소비가 마을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약함
- 마을 내 숙박시설과 인근 농촌민박, 한옥숙박 자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3. 지역자산 및 사업 추진역량

- 2014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을 통해 한옥문화센터, 마을회관 숙박시설, 식당 등이 조성되었고,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이 뽑은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선에 선정

1. 사업 개요

- 사업명 : ○ 마을 체크인 키친 조성사업
- 대상지 : 완주군 경천면 ○ 마을 일원
- 주요거점
 - 체크인 거점 : 한옥문화센터, 마을회관 부속공간, 저이용 시설 등
 - 먹거리 거점 : 기존 식당, 공동조리공간, 저이용 주방시설 등
 - 숙박 연계 거점 : 마을회관 숙박시설, 한옥숙박, 인근 농촌민박 등
 - 창업거리 거점 : 한옥골목, 빈집 마당, 유희창고, 공동마당, 주민가구 열린공간 등
 - 체험 거점 : 한옥문화센터, 공방공간, 주민 가구, 마을길, 전통문화 체험공간 등
- 참여대상 : 숙박 이용객, 관광객, 체험객, 로컬푸드·공방·마을체계에 관심 있는 도시민, 농외소득 창출에 관심있는 농업인과 마을주민
- 사업목적
 - 마을 내 유희·저이용 시설을 활용하여 방문객 안내, 숙박 연계, 체험, 마을산책, 로컬상품 구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농촌관광모델 구축

2. 기본구상

- 사업 콘셉트 : ○ 마을의 한옥문화센터, 마을회관 숙박시설, 기존 식당, 저이용 교육실, 한옥골목, 주민 가구, 인근 농촌민박을 하나의 관광 흐름으로 연결하여 방문객이 마을에 도착 후 숙소, 식사, 체험, 산책, 쇼핑을 통합적으로 이용
- 공간구상
 - 체크인 거점 : 방문객 안내, 숙박 연결, 체험 접수, 마을지도 제공(한옥문화센터,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 먹거리 거점 : 마을밥상, 전통다과, 조식꾸러미, 한식체험(기존 식당, 저이용 주방, 공동조리공간 등)
- 숙박 연계 거점 : 마을숙박, 인근 농촌민박, 한옥숙박 안내(마을회관 숙박시설, 인근 숙소)
- 창업거리 거점 : 먹거리, 공방, 동아리 체험, 로컬상품 판매(한옥골목, 빈집 마당, 공동마당, 유희 창고)
- 공방체험 거점 : 전통공예, 예술창작, 주민 취미활동 체험(저이용 교육실, 주민 가구, 공방공간)
- 마을산책 거점 : 한옥경관, 선비문화, 마을이야기 해설(한옥골목, 마을길, 농로, 마을숲)
- 운영지원 거점 : 예약관리, 홍보, 상품기획, 만족도 조사(체크인 라운지, 사무공간)

3. 사업 목표

- ○○마을 내 유희·저이용 시설을 체크인 키친과 선비문화 창업거리 거점으로 재생
-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마을과 인근마을의 숙박시설을 연결하여 체류형 농촌관광 기반 강화
- 통합형 마을관광운영체계 구축
- 주말과 마을축제 기간에 먹거리, 공방, 동아리 체험, 로컬마켓이 결합된 특화거리 운영
- 주민이 취미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체험상품으로 전환하여 마을관광 운영주체로 참여
-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다과, 꽃차, 수제청, 간식, 체험키트 등을 개발·판매할 수 있는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
- 청년·귀촌인이 홍보, 예약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상품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기회 확대

4. 주요 사업내용

- 오성한옥 체크인 거점센터 조성 : 한옥문화센터 또는 마을회관 부속공간을 활용하여 방문객 통합안내, 숙박 연계, 체험 접수, 식사 예약, 마을지도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체크인 거점센터 조성
- 한옥 마을밥상 및 조식꾸러미 운영 : 기존 식당과 저이용 주방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과 완주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한옥 마을밥상 운영
- 오성 선비문화 창업거리 운영 : 주말과 마을축제 기간에 한옥골목, 빈집 마당, 유희 창고, 공동마당, 주민 가구의 열린공간을 활용하여 오성 선비문화 창업거리 운영
- 집집마다 열린공방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취미생활, 동아리 활동, 생활기술을 관광·체험 콘텐츠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 농업인 로컬창업 테스트베드 운영 : ○○마을과 인근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활용하여 먹거리와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창업실험 공간 운영
- 한옥골목 마을산책 프로그램 운영 : 한옥경관, 마을역사, 선비문화, 주민 이야기, 농촌경관을 연결한 마을산책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예약·홍보 시스템 운영 : 체크인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숙박, 식사, 체험, 공방, 마을산책, 창업거리 프로그램을 통합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

5. 운영체계

- 운영주체 : 오성영농조합법인, ○○마을 주민, 농업인, 농촌민박 운영자, 공방운영자, 청년·귀촌인,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등

6. 연계사업

-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창업보육사업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사업

7. 기대효과

- 기존 공간을 체크인 키친과 창업거리 거점으로 전환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주말과 마을축제 기간에 먹거리, 공방, 동아리 체험, 로컬상품 판매가 결합된 특화거리를 운영하여 방문객 소비가 마을 내부로 확산
- 농업인은 농외소득 창출 기회 확보, 주민은 마을관광 운영 주체로 참여, 청년·귀촌인은 농촌 내 활동기회 확보
- ○○의 전통한옥, 선비문화, 음식문화, 공방체험, 농산물, 숙박시설을 하나의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연결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 강화

나. 마을에 남기는 14일 : J-Rural Learning Lab

■ 개요

- 마을에 남기는 14일 : J-Rural Learning Lab은 대학생·청년·귀촌 관심자가 농촌마을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농촌의 삶과 공동체를 학습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농촌기여형 런케이션 모델임
- 이 사업은 농촌 유희시설과 농촌민박을 활용하여 체류, 학습, 교류 기능을 결합한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조성하고, 관계인구 확대와 농촌 정주 관심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5-10] 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마을에 남기는 14일 : J-Rural Learning Lab
참여대상	대학생·대학원생, 청년, 귀촌 관심자, 로컬크리에이터
학습거점	권역센터, 체험관, 폐교, 저이용 공동시설
체류거점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운영주체	마을주민, 대학, 중간지원조직, 시·군
연계사업	전북 RISE 시·군 현안해결형 대학지원사업,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사업,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 국내외 사례 반영요소

- 전북형 농촌기여 런케이션 모델은 국내외 지역활성화 및 체류형 학습 사례를 분석하여 농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함
- 권역센터, 농촌민박, 농가, 체험장, 마을길, 축제장 등을 하나의 분산형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특정 시설 중심이 아닌 마을 전체를 현장캠퍼스로 운영함
- 농업기술, 향토음식, 공동체 운영 경험 등을 보유한 주민을 마을교수로 위촉하여 주민 지식을 교육자원화하고 주민이 직접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함

- 단순 체험을 넘어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유희공간 활용, 농촌민박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선 등 실질적 과제를 추진함
- 권역센터, 폐교, 체험관 등을 교육·회의·작업·성과공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함
-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을이 활용 가능한 운영매뉴얼, 홍보콘텐츠, 체험상품 등을 제공하여 사업성과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표 5-11]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

참고사례	반영요소	시사업
제주 런케이션	지역 전체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과 체류를 결합	농촌마을을 현장캠퍼스로 활용하는 체류형 학습모델 적용
핀란드 라우단마아	폐교를 교육·관광·원격근무가 가능한 복합거점으로 운영	권역센터·폐교 등 유희시설의 다기능 활용 필요
일본 가미야마 Food Hub	생산·가공·판매·식교육을 연계한 지역순환 모델 구축	농촌민박, 마을밥상, 농산물 활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프랑스 로름	유희시설을 디지털 교육 및 창작공간으로 재생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이탈리아 오스타나	전문가 체류와 지역 프로젝트를 결합한 레지던시 운영	대학생 외 연구자·창업가 참여 확대 가능
제주 김녕로컬푸드센터	공유주방과 가공·체험·판매 기능을 결합	농촌 먹거리 기반 체험 및 상품개발 연계
서천 우천바리안마을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주민을 교육자 및 운영주체로 참여시키는 구조 필요

■ 주요 사업내용

- 전복형 농촌기여 런케이션은 참여자가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면서 주민에게 배우고, 마을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실행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민을 교육자이자 공동기획자로 참여시키고, 참여자는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 마을교수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이 보유한 농업기술과 생활문화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여 현장 중심 학습으로 운영함

[표 5-12] 마을교수 운영 프로그램(안)

프로그램	주요 내용	주민 참여
농사로 읽는 마을	작목, 농사력, 농업환경 이해	농업인
마을밥상의 역사	향토음식과 식문화 학습	주민
공동체 운영학교	주민조직 운영사례 공유	마을대표
농촌생활기술학교	저장식품, 수공예 등 생활기술 교육	고령주민

- 마을 현안 해결 프로젝트는 마을별로 1개의 핵심 현안을 선정하여 주민과 참여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표 5-13] 마을 현안 해결 프로젝트(안)

현안 분야	추진내용	결과물
유희공간 활용	권역센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매뉴얼
농촌민박 활성화	조식·마을밥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모델
축제 체류화	1박 2일 체류코스 개발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 개선	청년·가족 대상 콘텐츠 개발	신규 체험상품
농산물 판로 확대	소포장 상품 및 예약판매 실험	시제품
디지털 전환	온라인 마을안내 제작	홍보 콘텐츠
귀촌 연계	귀촌탐색 프로그램 운영	귀촌체험 모델

- 농촌 체류형 생활학습은 참여자가 농촌민박 또는 체험휴양마을에 체류하며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생활서비스와 정주여건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표 5-14] 농촌 체류형 생활학습(안)

프로그램	주요 내용
농촌민박 생활일지	숙박 및 생활서비스 평가
주민과 한 끼	주민 교류 프로그램
아침 농촌일	농작업 참여
마을 밤마실	생활환경 점검
생활서비스 지도 제작	생활 인프라 조사

■ 정부사업 연계방안

- 전북 RISE 시·군 현안해결형 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생명, 관광, 디자인, 건축, 사회복지, 미디어 등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대학 참여체계를 구축함
- 캠프톤디자인, 현장실습, 비교과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학생, 교수,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추진함
-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은 권역센터, 폐교, 체험관 등을 런케이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 기능 개선에 연계함
-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공간을 주민교육 및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내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함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런케이션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연계함
- 농촌민박, 체험, 축제, 먹거리 프로그램을 통합 구성하고, 여행전문가와 협력하여 상품성을 검증한 뒤 예약·홍보·운영체계를 통해 실제 판매와 연계함

[표 5-15] 마을에 남기는 14일 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연계사업	역할	활용방향
전북 RISE 시·군 현안해결형 대학지원사업	교육·인재	참여자 모집, 교육과정 운영, 대학 캠퍼스디자인 및 현장실습 연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공간 조성	권역센터, 폐교, 체험관 등을 학습 및 활동거점으로 정비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관광상품화	런케이션 결과물을 체류형 농촌관광상품으로 개발

■ 기대효과

- 권역센터, 폐교, 농촌민박 등 기존 농촌자원을 학습·체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
- 대학생·청년이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주민과 함께 지역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귀촌·창업 연계 기반을 마련함
- 주민을 마을교수와 공동기획자로 참여시켜 지역의 경험과 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숙박·식사·체험 운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함
- 유휴공간 활용, 농촌민박 활성화, 체험·축제 개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을 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결과물을 지역에 환원함
- 교육·체류·지역기여를 결합한 전북형 농촌기여 런케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농촌관광과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정책모델로 확산할 수 있음

[표 5-16] ‘마을에 남기는 14일: J-Rural Learning Lab’ 사업계획서(예시)

[○○군]

1. 지역 특성

- 산, 들, 바다가 함께 있는 농산어촌 복합지역으로, 국립공원, 채석강, 갯벌생태공원, 곰소만, 새만금 등 자연·생태·해양·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함
- 농업 측면에서는 쌀, 오디, 참봉, 노을감자, 해풍양파, 절임배추 등 지역 농산물이 있으며, 수산·가공자원으로는 곰소젓갈, 바지락, 꽃게, 조미김, 죽염 등의 먹거리 자원을 보유함
- 농촌관광 측면에서는 다수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분포하고 있어 농촌체험, 생태탐방, 먹거리체험, 문화

체험의 기반을 갖추고 있음

- 해양관광, 생태관광, 농촌체험, 먹거리, 문화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2. 농촌지역의 주요 문제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마을의 운영인력과 공동체 활동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 공동이용시설 등은 조성되어 있으나, 평일·비수기에는 활용도가 낮고, 일부 시설은 프로그램 부족과 운영주체 고령화로 지속적인 운영의 한계가 있음
-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안 관광지와 내륙 농촌마을, 농산물, 체험마을, 공동이용시설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방문객 소비가 마을 내부로 이어지는 구조가 악함
-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자원을 콘텐츠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함

3. 지역자산 및 사업 추진역량

- 2024년 청년·대학생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사업 운영
 - 사업명 : 부아노로: ○○로 떠나는 팸투어
 - 사업기간 : 2024.5.~8.
 - 사업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청년 및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주요내용 : 경영체 및 참여자 모집선발, 사전교육, 농어촌 일자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평가간담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군에 남기는 14일 : Rural Learning Lab
- 대상지 : ○○군 농촌지역 일원
 - 주요 거점 : 권역센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농촌민박, 공동이용시설, 폐교 또는 저이용 공공시설
 - 체류거점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권역센터 숙박시설 등
 - 학습·공유거점 : 공동이용시설, 폐교, 체험관,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 참여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청년 및 로컬크리에이터, 귀농·농촌창업 관심자, 농촌관광·디자인·미디어·건축·사회복지·농생명 등 분야 전공자, B군 농촌자원 홍보와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관계인구 등
- 사업목적
 - 기존 농촌자산을 활용하여 청년과 대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학습, 교류, 기여활동을 수행하는 체류형 지역활성화 모델 구축

2. 기본구상

- 사업 콘셉트 : ○○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권역센터, 농촌민박, 폐교, 공동이용시설을 분산형 캠퍼스로 활용하여 청년과 대학생이 농촌의 삶을 배우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에 실질적 결과물을 남기는 사업
- 공간구상
 - 체류거점 : 숙박, 생활, 주민교류(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농촌민박, 권역센터 숙박동 등)
 - 학습거점 : 교육, 워크숍, 회의, 성과공유(권역센터, 폐교,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 작업거점 : 콘텐츠 제작, 상품기획, 프로젝트 수행(폐교 교실, 유휴 사무실, 공동작업장, 공유오피스형 공간 등)
 - 현장학습지 : 농작업, 생태탐방, 자원조사(농가, 마을길, 갯벌, 해안, 산림, 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장 등)
 - 주민공유공간 : 공동밥상, 마을교수 수업, 주민워크숍(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권역센터, 폐교 강당 등)

3. 사업 목표

-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을 청년 체류·학습·작업공간으로 재생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의 평일·비수기 이용률 증가
- 대학생·청년이 B군 농촌지역에 체류하며 농촌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 농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농가, 체험마을, 마을카페, 지역축제, 농산물 판매 활동 지원
- ○○군 농촌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카드뉴스, 마을지도, 체험상품, 홍보문구,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주민을 마을교수로 위촉하여 농업기술, 향토음식, 마을역사, 공동 운영경험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을이 활용 가능한 운영매뉴얼, 체험코스, 홍보콘텐츠, 농촌자원 아카이브를 지역에 남김

4. 주요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참여자가 ○○군 농촌마을에 14일간 체류하면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주민에게 배우며,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마을교수 수업, 농촌 워킹홀리데이, 현안 해결 프로젝트, 농촌자원 홍보, 성과공유회로 구성
- 마을교수 운영
 - 농업기술, 수산·해양문화, 향토음식, 마을역사, 공동체 운영 경험을 가진 주민을 마을교수로 위촉
 - 주민이 직접 ○○군 농촌의 삶과 자원을 가르치고, 청년은 이를 기록·콘텐츠화함
- 농촌 워킹홀리데이 운영
 - 참여자가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마을카페, 로컬푸드 판매활동에 참여하여 농촌의 일과 생활을 경험
 - 단순 농작업 체험이 아니라 농촌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기여활동으로 설계
- 농촌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
 - 참여자와 주민이 함께 마을별 핵심 현안을 선정하고 14일 동안 해결 방안을 실험
 - 단기간 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실천형 과제로 구성
- 농촌자원 홍보콘텐츠
 - 참여자가 ○○군 농촌마을의 자원을 조사하고 영상, 카드뉴스, 마을지도, 인터뷰 기사, 솜뿔 콘텐츠로 제작
 - 제작된 콘텐츠는 ○○군, 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로컬푸드, 지역축제 홍보에 활용
- 성과공유회 및 결과물 환류
 - 14일 프로그램 종료 시 주민, 행정, 대학,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
 - 참여자는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마을은 활용 가능성 검토
 - 결과물은 마을 운영자료, 홍보자료, 체험상품, 공간활용 계획으로 축적

5. 운영체계

- 운영주체 : ○○군, 참여마을, 대학, 중간지원체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조직 등

6. 연계사업

- 전북 RISE 시·군 현안해결형 대학지원사업(대학생 참여,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지도교수 연계)
-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폐교, 공동이용시설, 권역센터 기능 개선)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체류형 농촌상품 상품화, 1박 2일 코스 개발 등)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체험마을 프로그램 개선, 보험·안전관리 연계)
-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 관심자 체류, 정착상담, 농촌생활 경험 제공)

7. 기대효과

- 권역센터, 폐교, 공동이용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등 기존 농촌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민박의 평일·비수기 이용률을 높이고, 숙박·식사·체험·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 창출
- 대학생·청년·귀촌 관심자가 B군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재방문·귀촌·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인구 기반 마련
- 농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농가와 체험마을의 일손 부족, 홍보 부족, 프로그램 운영 부담을 일부 완화
- 참여자가 제작한 영상, 카드뉴스, 마을지도, 체험상품 기획안, 공간활용 매뉴얼 등이 마을에 축적되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으로 축적
- ○○군의 산·들·바다·갯벌·농산물·먹거리·농촌체험 자원을 하나의 체류형 학습모델로 연결하여 농촌관광과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구축

다.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 개요

-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저이용 공동시설, 마을숲, 하천, 농촌민박 등을 활용하여 농촌교육, 생태교육, 문화예술교육, 식생활교육, 농촌유학, 늘봄학교, 위케이션 기능을 결합한 체험·교육형 농촌 활성화 사업임
- 기존 농촌관광을 학생, 가족, 농촌유학 가구, 대학생, 일반 성인, 귀촌 관심자 등이 농촌에 머물며 배우고 생활하는 교육·체류형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등은 교육실, 프로젝트실, 공유오피스, 주민강의실, 체험실, 성과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촌민박과 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은 가족체류와 위케이션 공간으로 연계함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센터형 농촌유학, 늘봄학교·방과후 프로그램, 대학생 현장학습, 성인 위케이션, 귀촌탐색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농촌마을을 단순 방문자가 아닌 배움과 체류가 이루어지는 생활권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함

[표 5-17]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핵심공간	폐교, 권역센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부속공간
주요대상	농촌유학 가족, 초·중등 학생, 대학생, 청년, 일반 성인, 귀촌 관심자, 위케이션 참여자
주요기능	농촌교육, 생태교육, 식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농촌유학, 위케이션, 마을프로젝트
운영방식	가족체류형, 센터형 농촌유학, 주말·방학 캠프형, 대학 연계형, 성인 위케이션형
연계사업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늘봄학교, 농촌유학,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 국내외 사례 반영요소

- 해당 사업은 국내외 체류형 교육, 유휴시설 재생, 지역교육, 농촌관광 사례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한 모델임

- 핀란드 라우단마아 사례와 같이 폐교를 교육, 관광, 원격근무, 주민서비스가 결합된다. 기능 마을회관으로 전환하여 폐교와 권역센터를 농촌교육·위케이션·주민공유공간으로 활용함
- 이탈리아 오스타나와 같이 전문가, 예술가, 연구자, 청년이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지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레지던시 방식을 반영하여 대학생, 청년, 일반 성인이 마을에 머물며 교육·체험·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프랑스 로름은 유희시설을 디지털 교육과 창작공간으로 재생하여 폐교와 공동이용시설 일부를 공유오피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 원격근무공간으로 조성함

[표 5-18]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참고사례	반영 요소	시사점
핀란드 라우단마아	폐교를 교육·관광·원격근무 복합공간으로 전환	폐교와 권역센터를 농촌교육·위케이션 거점으로 활용
이탈리아 오스타나	전문가·청년 체류와 지역 프로젝트 결합	대학생·청년·일반 성인의 마을기여형 체류 프로그램 적용
프랑스 로름	유희시설을 디지털 교육·창작 공간으로 재생	공유오피스, 콘텐츠 제작실, 디지털 교육공간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을 교육·체류·위케이션 공간으로 전환하고, 농업·생태·문화·먹거리·생활기술을 교육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임
-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의 체험기능을 학생, 가족, 성인, 청년, 귀촌 관심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함
-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등은 학습센터, 공유오피스, 주민교육실, 성과공유실로 활용하고, 농촌민박과 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은 가족체류와 성인 위케이션 체류공간으로 활용함

- 사업은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센터형 농촌유학, 늘봄·방과후 농촌교육, 대학생 현장학습, 성인 위케이션, 농촌자원 홍보콘텐츠 제작,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구성함

[표 5-19] 주요 사업내용(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식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농촌유학 가족이 농촌민박·빈집·체험휴양마을에 머물며 작은학교, 마을교육, 농촌체험을 연계	학기제·방학형·단기체류형
센터형 농촌유학	폐교·권역센터를 농촌유학지원센터로 조성하여 학습, 돌봄, 체험, 가족교류 기능 운영	센터 기반 통합 운영
늘봄·방과후 농촌유학	마을숲, 농장, 하천, 체험관을 활용한 농업·생태·문화·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청 연계
대학생 현장학습	대학생이 마을에 체류하며 농촌문제 해결, 체험상품 개발, 마을기록 활동 수행	캠퍼스·토디자인·현장실습
성인 위케이션	참여 성인과 가족이 농촌에 머물며 원격근무, 농촌체험, 지역교류를 병행	주중 체류·예약제
농촌자원 홍보콘텐츠	마을지도, 영상, 카드뉴스, 체험상품 소개자료 제작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참여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	유희공간 활용, 체험프로그램 개선, 농촌민박 연계, 생활서비스 조사	주민·참여자 공동수행

■ 정부사업 연계방안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폐교, 권역센터, 농촌민박, 마을숲, 하천 등 기존 농촌자산을 교육·체류·위케이션 기능으로 고동화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 지역교육, 농촌유학, 문화예술, 유희시설 재생 관련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마을밥상, 생태교육, 문화체험, 지역축제를 결합한 체류형 교육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
-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숲, 하천, 농장, 체험관, 폐교를 활용한 농업체험, 식생활교육, 전통문화체험,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촌유학 관련 지자체·교육청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민박, 빈집, 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을 가족체류공간으로 활용하고, 폐교·권역센터를 농촌유학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교, 권역센터, 공동이용시설 등을 학습공간, 공유오피스, 가족교류실, 성과공유실로 정비할 수 있음
- 열린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표 5-20]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연계사업	역할	활용방향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관광상품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마을밥상, 생태교육을 묶은 체류형 교육관광 상품 개발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돌봄	농업체험, 생태체험, 식생활교육, 전통문화체험 운영
농촌유학 관련 지자체·교육청 사업	가족 체류형 교육	농촌민박, 빈집, 체험휴양마을을 가족 체험공간으로 활용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공간 재생	폐교, 공동이용시설, 권역센터를 학습·위케이션 공간으로 정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무장애 체험환경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이 이용 가능한 체험환경 조성

■ 기대효과

- 폐교, 권역센터, 공동이용시설 등 유희·저이용 공간을 교육·체류·위케이션 거점으로 전환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업의 일회성 체험을 교육적 가치가 있는 농업·생태·문화·식생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음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과 센터형 농촌유학을 통해 작은학교, 농촌민박, 체험휴양마을, 마을교육을 연결하고 농촌 정주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음
-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가족 생태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촌마을의 교육공동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성인과 학부모를 위한 위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체류수요를 확대하고, 평일·비수기 농촌민박과 체험휴양마을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 주민은 마을교사·마을교수로 참여하여 농업기술, 전통음식, 마을역사, 생활기술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하고, 교육·체험 운영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표 5-21] 마을 배움체류 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서(예시)

[김제시 성덕면 ○○리]

1. 지역 특성

- ○○리 일원은 김제시 서부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평야 농촌마을로, 수도작 중심의 농업 기반과 농촌생활문화, 전통교육자원, 마을공동체 자원을 보유함
- 성덕면은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와 김제역 접근성이 비교적 우수하여 수도권 및 전북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고, 농촌유학 가족과 외부 체류인구가 방문·정착하기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춘
- ○○리 일원은 남포들넉마을정보센터, 남포들넉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남포어린이집, 성덕초등학교, 성덕초 병설유치원, 지평선중·고등학교 등 교육·문화·체류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음
- 유아기부터 초등, 중등, 고등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이 형성되어 있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뿐만 아니라 센터형 농촌유학, 지역 아동 교육·체험, 청소년 프로젝트 학습, 학부모 위케이션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성덕면과 인근 지역에는 학성강당, 해학 이기선생 생가, 남산서원, 용호사 터 등 전통문화와 선비문화 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특화 교육콘텐츠로 활용 가능함
- 김제시는 벽골제, 지평선축제, 농생명 체험자원, 평야 경관, 농업문화 등 농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로컬유학과 체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함

2. 농촌지역의 주요 문제

- 성덕면을 포함한 김제 서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농촌마을 공동체 약화, 지역활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농촌유학 가족의 유입을 위해 주거공간, 교육공간, 돌봄, 문화활동, 학부모 일자리·활동공간이 함께 갖춰져야 함
- ○○마을에는 정보센터, 남포들넉관, 작은도서관, 공공체험시설 등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으나, 이들 시설이 가족체류, 교육, 공동체 활동, 위케이션, 지역체험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기존 가족체류형 농촌유학은 농촌유학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아동·청소년, 학부모, 대학생, 일반 성인, 귀농귀촌 관심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로컬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유학 가족이 단기간 체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며 장기체류, 재방문, 귀농귀촌, 지역활동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 생활·교육·일자리·문화·체험을 연결하는 조직이 필요함
- 지역주민이 보유한 농업기술, 전통문화, 공동체 운영경험, 생활지혜가 교육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마을교사·마을교수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3. 지역자산 및 사업 추진역량

- 2023년 행정안전부 ‘고향올라(GO鄉ALL來) 농촌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 유형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 운영주체 : 드림투게더 사회적협동조합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마을 배움채류 캠퍼스 조성사업
- 대상지 : 김제시 성덕면 ○○리 일원
- 주요 거점
 - 생활·채류거점 : 남포들넉마을정보센터, 남포들넉관, 농촌민박, 가족형 숙소, 한옥형 숙소, 권역센터 등
 - 학습·공유거점 : 희망남포작은도서관, 정보센터 교육장,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부속공간
 - 전통문화교육거점 : 학성강당, 해학 이기선생 생가, 남산서원 등
 - 현장학습지 : 가족텃밭, 평야 농경지, 벽골제, 농촌체험경영체, 마을길, 공공체육시설 등
 - 위케이션 거점 : 정보센터 2층 공용공간, 교육장, 사무실, 유휴 회의실 등
- 참여대상 : 가족채류형 농촌유학 가족, 센터형 농촌유학 참여 학생, 성덕초 및 인근 지역 아동·청소년, 학부모, 일반 성인, 위케이션 참여자, 대학생·대학원생,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귀농귀촌 관심자, 농촌교육·농촌관광·문화예술 분야 활동가
- 사업목적
 - 기존 가족채류형 농촌유학 기반을 활용하여 ○○마을을 센터형 농촌유학과 교육·체험·위케이션 기능이 결합된 로컬유학거점으로 조성

2. 기본구상

- 사업 콘셉트 : 가족형 숙소, 한옥형 숙소, 교육장, 작은도서관, 학성강당, 가족텃밭, 농촌체험자원 등을 하나의 분산형 캠퍼스로 연결하여 농촌유학 가족, 농촌유학생, 지역 아동, 청년, 성인이 함께 배우고 채류하는 교육·채류 거점 조성
- 공간구상
 - 가족채류거점 : 가족형 농촌유학 숙박, 생활, 주민교류(남포들넉마을정보센터 숙소, 남포들넉관 한옥형 숙소)
 - 센터형 농촌유학 거점 : 학생생활, 학습, 돌봄, 공동생활
 - 학습·공유거점 : 독서교육, 프로젝트 수업, 성과공유(희망남포작은도서관, 정보센터 교육장)
 - 전통문화교육거점 : 선비문화, 예절, 서예, 한문, 전통놀이(학성강당, 남산서원 등)
 - 위케이션 거점 : 학부모·성인 원격근무, 회의, 콘텐츠 제작(정보센터 2층 공용공간, 사무실, 교육장)
 - 현장학습지 : 농업, 생태, 농경문화, 체험교육(가족텃밭, 평야 농경지, 벽골제, 체험경영체)
 - 주민공유공간 : 공동밥상, 주민워크숍, 마을교수 수업(공동식당, 마을회관, 공공체육시설)

3. 사업 목표

- 가족채류형 농촌유학 운영 기반을 센터형 농촌유학과 로컬유학거점으로 확장
- 기존시설을 교육·채류·돌봄·위케이션 공간으로 재구성
- 농촌유학 가족, 농촌 유학생, 지역 아동, 청소년, 학부모, 대학생, 일반 성인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교육·체험 플랫폼 구축
- 지역 아동과 유학생이 함께 배우는 농업, 생태, 전통문화, 식생활, 농경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와 성인을 위한 위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장기체류와 지역 정착 가능성 확대
- 대학생·청년 참여형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홍보콘텐츠, 체험상품, 교육자료, 공간운영 매뉴얼 개발
- 주민을 마을교사·마을교수로 위촉하여 지역의 지식과 경험을 교육자원화하고 주민참여형 운영체계 구축

4. 주요 사업내용

- 센터형 농촌유학지원센터 조성 : 가족채류형 농촌유학을 지원하고, 학생의 생활·학습·돌봄·지역 아동 교육,

학부모 상담, 체험프로그램 연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거점으로 농촌유학 가족의 입주상담, 생활안내,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주말 체험, 가족교류, 지역 적응 프로그램 지원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고도화 : 농촌유학 가족의 체류 안정성과 지역 적응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원격근무 수행을 위한 워케이션 공간 운영
- 센터형 농촌유학 운영 : 가족 동반이 어려운 학생이 일정기간 ○○마을에 머물며 농촌학교와 마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아동·청소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유학생과 가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아동·청소년도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험 플랫폼으로 운영
- 대학생·청년 로컬러닝 프로그램 운영 : 일정기간 머물며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유학과 지역자원을 홍보하는 기여형 프로그램 운영
- 성인·학부모 워케이션 공간 조성 : 농촌유학 학부모, 일반 성인, 귀촌 관심자, 청년 프리랜서가 ○○마을에 체류하면서 원격근무와 지역교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성
- 마을교사·마을교수단 운영 : 농업기술, 전통문화, 독서문화, 마을역사, 공동체 운영 경험을 보유한 주민과 지역활동가를 교육자로 위촉하여 운영

5. 운영체계

- 운영주체 : 김제시, 김제교육지원청, 인근 초··학교, 주민조직, 희망남포작은도서관, 학생강당, 중간지원조직, 농촌체험 운영주체

6. 연계사업

- 전북 농촌유학 지원사업(유학생 모집, 체재비 지원, 학교 연계)
-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가족형 숙소, 한옥형 숙소, 교육장, 공동공간 등 활용)
- 교육발전특구(농촌유학, 작은학교, 마을교육, 지역교육 혁신 연계)
- 늘봄학교 및 방과후 프로그램(지역 아동·유학생 공동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농촌유학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유휴시설을 학습·워케이션·공유공간으로 정비)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가족체류형 교육관광 상품 개발)
- 전북 RISE 시·군 현안해결형 대학지원사업(대학생 참여형 마을문제 해결 프로젝트 운영)
- 귀농귀촌 지원사업(학부모·성인 귀촌상담 및 지역탐색 연계)

7. 기대효과

- 기존 농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휴·저이용 공간을 교육·체류·돌봄·워케이션 거점으로 전환
- 지역 학교, 도서관, 학생강당 등을 연계하여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로컬교육 기반 구축
- 지역 아동과 농촌유학 학생이 함께 배우는 농업·생태·전통문화·식생활·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촌학교의 활력 강화
- 학부모와 성인을 위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장기체류 수요를 확대하고, 귀촌·창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주민은 마을교사·마을교수로 참여하여 농업기술, 전통문화, 마을역사, 생활기술을 교육자원으로 전환하고, 교육·체험 운영을 통한 소득 창출 기회 확보
- 대학생·청년이 농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유학 안내서, 마을지도, 체험상품, 홍보콘텐츠, 공간운영 매뉴얼 등 마을에 필요한 결과 축적

라.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 개요

-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의 유희·저이용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고령주민, 독거노인, 1인가구, 취약계층, 거동불편 주민, 신규 입주민, 귀농·귀촌인 등에게 먹거리, 안부확인, 건강관리, 사회참여,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촌형 생활돌봄 거점 조성사업임
-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보건, 생활편의, 주민교류, 정착지원 기능을 마을 단위에서 연결하여 농촌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움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핵심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민 간 관계망을 회복하고, 고령주민과 신입 입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권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표 5-22]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핵심공간	권역센터, 마을회관 부속공간, 폐교, 저이용 체험관, 공동이용시설 등
주요대상	고령주민, 독거노인, 1인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청년농촌보급자리 입주가구 등
주요기능	생활상담, 안부확인, 건강관리, 이동·동행 지원, 생활서비스 연계, 문화·여가, 주민교류, 정착지원
운영방식	주 2~3회 거점 운영, 예약제·방문형 병행,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연계사업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귀농귀촌 지원사업

■ 국내외 사례 반영요소

- 일본 지역포괄케어는 의료, 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이 지역 안에서 연계되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농촌마을에서도 보건소, 복지기관, 주민조직, 마을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돌봄체계가 필요함

- 일본 지역살롱은 고령주민이 정기적으로 모여 건강활동, 여가활동, 주민교류를 하는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전달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커뮤니티 공간임

[표 5-23] 국내외 사례 반영 요소(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참고사례	반영 요소	시사점
일본 지역포괄케어	의료·요양·예방·주거·생활지원 연계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마을 단위에서 통합 연계
일본 지역살롱	건강활동, 여가활동, 주민교류 운영	돌봄을 주민관계 회복과 사회참여로 확장

■ 주요 사업내용

- 농촌주민의 생활불편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생활돌봄 데스크를 운영하여 상담, 신청, 서비스 연계, 일정관리, 사후확인 기능을 수행함
- 생활돌봄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고령주민, 독거노인, 1인가구, 취약가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건강상태, 생활불편, 주거안전, 정서적 고립 여부를 점검함
- 보건소, 복지기관, 생활지원사, 방문간호 인력 등과 협력하여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확인, 건강상담, 만성질환 예방교육, 낙상예방 교육 등을 운영함
- 이동이 어려운 고령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병원, 장보기, 행정기관 방문,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 이동·동행 서비스를 운영함
- 마을회관, 권역센터, 폐교 등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건강교실, 문화교실, 주민모임, 생활기술교육, 디지털 교육,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사회참여와 관계망 회복을 지원함
- 귀농귀촌인, 청년농촌보급자리 입주가구, 농촌유학 가족 등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내, 지역기관 소개, 주민교류, 정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함

- 농촌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불편, 안전문제, 이동불편,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과 연계함

[표 5-24] 주요 사업내용(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식
생활돌봄 데스크	생활상담, 서비스 신청·접수, 복지·보건·주거서비스 연계	생활돌봄 매니저 운영
안부확인 서비스	전화·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생활불편, 고립여부 확인	주 1~2회 대상자별 관리
건강관리 프로그램	혈압·혈당 확인, 건강상담, 낙상예방, 운동교실 등	보건소·방문간호·생활지원사 협력
이동·동행 지원	병원, 장보기, 행정기관, 문화활동 참여 동행	예약제·대상자 우선 지원
생활편의 연계	소규모 주거수리, 안전점검, 디지털 교육, 생활물품 공동구매	관련 기관·자원봉사 연계
주민교류 프로그램	건강교실, 문화교실, 생활기술교육, 세대교류 활동	주 1회 또는 월 2회 운영
신규 주민 정착지원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청년 입주가구 생활안내 및 주민교류	입주 초기 집중 운영
생활서비스 지도 제작	마을 내 의료, 교통, 장보기, 복지, 문화시설 정보 정리	청년·대학생 참여 가능
디지털 생활지원	스마트폰, 온라인예약, 비대면 진료 신청, 행정서비스 이용 교육	청년·디지털 강사 연계

■ 정부사업 연계방안

-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은 권역센터, 폐교,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을 상담, 주민교류, 건강관리,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통합생활돌봄 거점으로 정비하는 데 활용함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생활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운영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주민과 돌봄 필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서지원, 만성질환 예방,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주민의 지역 적응, 생활안내, 주민교류, 정착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유학 가족과 청년 입주가의 지역 정착을 돕는 생활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장함

[표 5-25]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과 연계가능한 정부사업

연계사업	역할	활용방향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	공간 조성	권역센터, 폐교, 마을회관나 부속공간을 생활 돌봄 거점으로 정비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주체 육성	주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생활돌봄 운영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	통합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부확인·정서지원	독거노인, 고령가구 대상 방문·전화 확인 및 정서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	혈압·혈당 확인, 만성질환 예방, 건강교육 운영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규 주민 정착지원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청년 입주가구 생활안내

■ 기대효과

- 권역센터, 폐교, 마을회관 부속공간 등 유휴·저이용 시설을 농촌형 통합생활돌봄 거점으로 전환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임
- 고령주민, 독거노인,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마을에서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농촌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함
- 보건, 복지, 주거, 이동, 정착지원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주민조직, 생활돌봄 매니저, 마을활동가, 보건소, 복지기관, 중간지원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돌봄 기반을 확보 가능함

- 농촌유학 가족, 귀농귀촌인, 청년농촌보급자리 입주가구 등 신규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와 주민교류를 지원함
- 주민교류, 건강교실, 문화활동, 생활기술교육 등을 통해 고령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은 농촌형 생활SOC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결하는 생활권 단위 돌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음

[표 5-26]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사업계획서(예시)

[진안군 ○○면]

1. 지역 특성

- 산림, 고원, 농촌마을, 생활권 중심지가 결합된 농촌지역으로, 자연환경과 공동체 기반을 함께 보유한 지역임
- ○○면은 면적이 넓고 배후마을이 분산되어 있어 고령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1인가구, 취약계층이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면소재지 또는 읍 중심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복지센터, 체육관,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농협, 우체국 등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이 일부 집적되어 있음
- 배후마을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보건, 이동, 문화, 생활편의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
- ○○면은 기존 복지센터와 공동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연결하는 농촌형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구성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2. 농촌지역의 주요 문제

- ○○면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통합생활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면소재지에 일부 생활서비스 기능시설이 있으나, 배후마을 주민이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지원과 서비스 연계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이용 접근성은 낮은 편임
- 현재 주민조직과 협동조합이 다양하게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활동공간, 전문인력,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연계창구가 충분하지 않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마을회관, 권역센터, 복지센터, 폐교, 공동이용시설 등 기존 공간은 있으나 일부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생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생활서비스를 거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등 신규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생활안내와 주민교류 프로그램도 부족함
- ○○면에는 보건, 복지, 이동, 주거, 문화, 정착지원, 안부확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이 필요함

3. 지역자산 및 사업 추진역량

- ○○면은 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회관 등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과 연계 가능한 생활서비스 자원 보유
- 지역 내 통합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주도형 돌봄조직으로 고령주민 지원, 생활돌봄, 반찬나눔, 주

- 거관리, 마을회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경험 보유
- 조합원 중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 생활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면에는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사업
- 대상지 : 진안군 ○○면 일원
- 핵심거점 : 지역 내 유휴·저이용 공동시설
- 연계거점
 - 생활돌봄 거점 : 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이용시설
 - 건강관리 거점 :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연계공간, 건강교실 운영공간
 - 주민교류 거점 :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쉼터
 - 이동지원 거점 : 행복콜버스 승하차 지점, 면소재지 생활서비스 시설
 - 신규 주민 정착거점 : 공공임대주택, 농촌유학 관련 공간, 귀농귀촌 상담공간
- 참여대상 : 고령주민, 독거노인, 1인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치매 고위험군,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청년·신규 주민 등
- 사업목적
 - 지역 내 유휴·저이용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상담, 안부확인, 건강관리, 이동·동행지원, 주거안전, 사회참여, 신규 주민 정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농촌형 생활돌봄 거점을 조성

2. 기본구상

- 사업 콘셉트 : 단일 복지시설이 아니라 ○○면의 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작은도서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행복콜버스, 주민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 돌봄 플랫폼
- 공간구상
 - 생활돌봄 : 생활상담, 서비스 신청, 기관 연계, 일정 관리(스테이션 - 유휴·저이용 공동이용시설)
 - 안심확인실 : 안부확인, 사례관리, 생활불편 기록(스테이션 - 유휴·저이용 공동이용시설)
 - 건강생활 코너 : 혈압·혈당 확인, 건강상담, 치매예방, 낙상예방(보건지소 연계공간)
 - 이동동행 창구 : 병원, 장보기, 행정기관 방문, 행복콜버스 연계(스테이션 - 유휴·저이용 공동이용시설)
 - 생활수리 코너 : 소규모 수리접수(스테이션 - 유휴·저이용 공동이용시설)
 - 디지털 생활지원실 : 스마트폰, 온라인 행정, 비대면 서비스 이용 교육(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 주민교류 라운지 : 건강교실, 문화활동, 주민모임, 세대교류(복지센터,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 신규 주민 웰컴데스크 : 귀농귀촌인, 농촌유학 가족, 입주민 생활안내(스테이션 - 유휴·저이용 공동이용시설)

3. 사업 목표

- 지역 내 유휴·저이용 공동시설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으로 재생
-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발견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며, 서비스를 마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
- 기존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주민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 신규 주민의 생활적응과 지역정착 지원

4. 주요 사업내용

- 마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 조성 : 지역 내 유휴·저이용 시설을 활용하여 상담, 건강확인, 주민교류,

- 디지털 지원, 이동지원, 사례관리, 생활수리 접수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배치
- 365 안심확인 서비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방문 확인
 - 우리동네 건강생활 프로그램 : 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 인력과 협력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이동·동행 생활지원 서비스 : 배후마을 주민이 병원, 약국, 장보기, 행정기관, 금융기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동행 서비스 연계
 - 생활수리·주거안전 지원 : 고령주민과 취약가구의 주거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 자원봉사단체, 주민기술자와 연계하여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
 - 디지털 생활지원 서비스 : 고령주민과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온라인 행정서비스, 병원 예약, 교통 예약, 금융앱,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주민교류·사회참여 프로그램 : 스테이션을 주민이 모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생활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 신규 주민 정착지원 서비스 : 신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생활안내와 주민교류 지원
 - 생활서비스 지도 및 안심데이터 구축 : 마을별 고령주민, 취약가구, 생활서비스 시설, 이동동선, 위험공간, 돌봄자원을 조사하여 생활서비스 지도 제작

5. 운영체계

- 운영주체 : 진안군, ○○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지소,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 등

6. 연계사업

-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유휴·저이용 시설·공간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으로 정비)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소규모 주거안전 개선)

7. 기대효과

- 지역 내 유휴·저이용 시설을 통합생활돌봄 스테이션으로 전환하여 기존 농촌자산의 활용도를 높임
-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
- 보건, 복지, 주거, 이동, 문화, 정착지원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 단위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 앞서 제시한 사업(안)들은 사업유형과 주요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 유희·저이용 시설의 재활용, 주민 참여형 운영, 청년·귀촌인 역할 확대, 정부사업 간 연계, 지역자원의 사업화라는 공통된 추진 구조를 가짐
- 농촌의 시설 활용도가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운영주체 부재, 프로그램 기획 역량 부족, 홍보·예약관리 미흡, 수익모델 부재, 주민참여 약화 등이므로 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실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운영협의체 구성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조직, 청년·귀촌인, 관련 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운영협의체는 개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사업 추진의 공간적 범위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자원 연계, 프로그램 기획, 정부사업 매칭, 운영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농촌마을의 유희시설, 농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역축제, 로컬푸드, 대학, 보건·복지기관 등은 각각 다른 부서와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하나의 사업 흐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이 중요함

[표 5-27] 운영협의체 구성(안)

구분	주요 참여주체	주요 역할
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촌정책·관광·복지·청년 관련 부서	사업 기획, 예산 연계, 제도 지원, 성과관리
중간지원조직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시·군지원센터 등	사업 발굴, 주민교육, 현장지원, 운영 모니터링
주민조직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실행, 시설 운영, 주민 참여, 공동수익 관리
청년·귀촌인	청년단체, 귀촌인,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	상품기획, 홍보·예약관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창업실험
관련 기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보건소, 복지기관, 대학 등	기술지원, 판로연계, 먹거리·돌봄 연계, 교육·인력 지원
민간전문가	관광기획자, 식품가공 전문가, 브랜딩 전문가, 회계·법무 전문가	사업모델 고도화, 상품화, 수익구조 설계, 전문 컨설팅

- 운영협의체는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활용계획, 프로그램 운영 일정, 연계사업 신청, 홍보·마케팅, 안전관리, 수익배분 기준 등을 협의함
- 개별 마을이나 시설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생·인허가, 회계관리, 예약시스템,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도, 시·군 차원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교육·보육·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사업(안)은 시설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전에 참여주체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조직, 청년·귀촌인,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후 보육단계와 실행단계에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전 교육과정은 사업의 기본 취지 이해, 지역자원 조사, 프로그램 기획, 고객응대, 안전·위생관리, 회계관리, 홍보·마케팅, 수익모델 설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보육단계에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제 운영 가능한 모델로 구체화하고, 대상지별 공간 활용계획, 운영주체 구성, 프로그램 시범안, 예산계획, 연계사업 신청계획 등을 마련함

- 실행단계에서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 서비스 품질관리, 고객관리, 판로개척, 주민갈등 조정, 수익배분, 성과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교육·보육·컨설팅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신청 이전부터 시범운영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가공·식품, 관광·체험, 런케이션, 먹거리돌봄 등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전문역량이 다르므로, 공통교육과 유형별 전문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전담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

- 해당 사업(안)들은 여러 정부사업과 지역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별 마을이 모든 행정절차와 사업연계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운영협의체와 별도로 현장에서 사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코디네이팅 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함
- 전담 코디네이팅 조직은 사업대상지 발굴, 주민회의 지원,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매칭,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범운영 모니터링, 성과관리, 후속사업 연계 등을 수행함
- 전담 코디네이팅 조직은 행정과 마을 사이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마을의 자원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현장기획자 역할을 수행함

■ 단계별 운영·관리체계

- 사업들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발굴, 준비, 보육, 실행, 정착의 단계를 거쳐 운영역량을 축적해야 함
-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기보다 운영 가능성이 높은 마을과 시설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모델을 검증한 뒤 생활권 단위로 확산하는 방식이 적절함

-
- 해당 사업들은 사업 아이디어의 우수성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사람, 교육, 컨설팅, 성과관리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함
 - 시·군 또는 생활권 단위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고, 전담 코디네이팅 조직을 통해 현장 실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참여주체가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육단계와 실행단계에서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결론 및 제언

가. 결론

- 전북 농촌지역은 그동안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촌활성화사업을 통해 권역센터, 공동이용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지역축제, 가공시설 등 다양한 지역자산을 축적해 왔음
- 이러한 시설과 자원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농촌관광 및 소득활동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음
- 일부 시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운영주체 약화, 이용 수요 감소, 프로그램 부족, 운영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유휴·저이용 상태에 놓여 있음
- 권역센터, 커뮤니티센터, 체험관, 가공시설, 저이용 숙박시설 등은 조성 당시의 목적과 현재 지역수요가 일치하지 않거나, 운영주체와 프로그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거나 재개장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설의 기능을 재진단하고 지역수요에 맞게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함
- 국내외 사례에서도 유휴·저이용 시설의 활용은 단순한 공간 재생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먹거리, 숙박, 교육, 문화, 디지털 기반, 생활서비스, 주민조직 등과 결합될 때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
- 지역 먹거리 순환, 폐교와 공동시설의 복합공간화, 통합 예약·홍보 시스템, 주민 생활서비스 공간화, 협력형 운영체계 구축 등이 유휴시설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전북 농촌지역의 유휴·저이용 시설은 개별 시설 단위의 관리대상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재구성해야 할 지역자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북 농촌지역의 기존 시설과 자원을 소득·창업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소득 창출, 생활·관계인구 확대, 생활서비스 보완을 위한 지역자산 재생모델을 제시함

-
- 소득·창업형 모델은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농외소득 확대를 도모하는 모델임
 - 체험·교육형 모델은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등을 활용하여 교육형 농촌관광과 체류형 학습을 확대하는 모델임
 - 생활서비스·정주형 모델은 권역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 공동식사, 건강관리, 생활편의,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보완하는 모델임
 - 따라서 향후 전북 농촌정책은 신규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과 자원의 기능을 개편하고, 생활권 단위로 연결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함
 -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은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의 일상생활 개선, 지역소득 창출, 청년·귀촌인 활동기회 확대, 생활·관계인구 형성, 생활서비스 보완을 함께 실현하는 정책수단 추진이 필요함

나. 정책제언

- 첫째,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의 활용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DB화해야 함
 - 시설별 조성 시기, 조성 목적, 현재 이용 현황, 운영주체, 운영비, 프로그램, 유지관리 상태, 주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단순 활용 여부가 아니라 전면 활용, 부분 활용, 계절 활용, 행사 중심 활용, 미활용, 기능 전환 필요 시설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 구축된 DB는 농촌공간계획, 농촌협약, 농촌 유희시설 활용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 관리, 마을기업 및 농촌관광사업 연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둘째, 유희·저이용 시설을 생활권 단위의 지역자산으로 재구성해야 함
 - 기존 시설을 조성 당시의 목적에만 묶어두지 않고, 현재의 주민수요와 지역자원에 맞게 기능을 전환
 -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은 주민소득과 농외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
 - 폐교, 권역센터, 체험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민박 등은 체험·교육, 농촌유학, 위케이션, 관계인구 확대 공간으로 연계
 - 마을회관, 경로당, 권역센터, 공동이용시설 등은 공동식사, 건강관리, 생활상담, 돌봄서비스,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확대
- 셋째, 행정,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청년·귀촌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 유희시설 운영을 주민조직에게 맡기는 방식은 고령화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 존재
 - 행정은 제도·예산·부서 간 연계를 담당하고, 주민조직은 공간 운영과 지역자원 제공 담당
 - 중간지원조직은 사업기획, 컨설팅, 교육, 성과관리, 외부기관 연계를 지원
 - 청년·귀촌인과 민간전문가는 홍보, 예약관리, 콘텐츠 제작, 상품기획, 디지털 운영 등에 참여
- 넷째, 관련 정책사업을 패키지 방식으로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 농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간 정비와 기능 개선에 활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 공동운영조직 구축과 수익사업 운영에 연계
 -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체류형 관광상품, 마을산책, 마을밥상, 체험프로그램개발에 활용
 - 전북 RISE,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유학, 늘봄학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도 시설 기능 전환과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연계
- 다섯째, 성과관리는 시설 활용도 중심에서 지역자산 재생 효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향후 성과관리는 방문객 수나 시설 이용 횟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소득, 주민참여, 청년·귀촌인 활동, 생활·관계인구 형성, 생활서비스 이용, 주민만족도 등을 함께 평가
 -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주체, 수익구조, 프로그램 지속성, 유지관리체계가 작동하는 지 정기적으로 점검
 - 단순한 시설 정비사업이 아니라, 기존 농촌자산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지역자산 재생정책으로 추진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평년. (2019).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현안해결 현장포럼 운영 및 사후관리 유형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1), 162-179.
- 김미영, 임상봉, 심고은, 장보람, 박준구, 이형순. (20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 실태분석과 통합적 발전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김해영, 나승화, 신용규, 조중현. (2019). 농촌지역개발사업 조성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선정요소에 대한 IPA 분석 및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5(1), 89-97.
- 도지윤, 김수연. (2023).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농촌지역 유희공간 인식 분석-청년창업 공간으로써 폐교 활용성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32(6), 556-578.
- 박경빈, 김철영. (20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의성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21(3), 214-223.
- 신병욱, 남혜경, 오수민, 윤지은, 김성호, 윤지현, 이채현, 남지원. (2024).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 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여혜진, 정인아. (2021).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 이성재, 장성화, 한국환. (20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강화 방안. 전북연구원,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567>
- 이승욱, 김명수, 조판기, 김은란, 구형수, 박소영, 김수진, 배인영 (2018). 지역발전을 위한 유희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종민, 이민경, 오성훈. (2016). 유희공간의 전략적 활용 체계 구축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진희, 박효숙, 구지영. (2024).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전라북도. (2023). 마을공동체 시설 활용 및 체험휴양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정책연구 2026-11

전북 농촌 유희·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

발행인 | 최백렬

발행일 | 2026년 06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44-6 955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 788966 126446
ISBN 978-89-6612-644-6 (PDF)